

2021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목 차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I. 조사 배경 및 목적	7
II. 조사 설계	7
1. 조사 대상 및 사례수	7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7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9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9

조사결과의 분석

I. 조사결과의 분석	13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3
2. 욕구조사 결과	26
1) 개인적인 문제	26
2) 복지관 운영	33
3) 생애주기별 영역별 욕구	39
(1) 영유아 영역별 욕구	39
(2) 아동·청소년 영역별 욕구	44
(3) 청년 영역별 욕구	55
(4) 중장년 영역별 욕구	69
(5) 노인 영역별 욕구	80
4) 건의사항	88

요약 및 제언

I. 요약 및 제언	91
1. 요약	91
2. 제언	107

부록 2021년 남동구 지역장애인욕구조사 설문지	113
----------------------------------	-----

2021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목적 및 조사설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 배경 및 목적

본 복지관에서는 장애인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양한 설문조사를 이용하고 있다. 프로그램별 만족도 조사 및 시설별 만족도 조사를 10월 중 진행하고 있으며, 프로그램별 수시로 상담을 통해 개선된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있다. 또한, 재가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대표자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대상자 의견의 사각지역을 최소화 하고자 욕구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매회 설문조사를 통해 이용인 중심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새로운 프로그램 개발, 시설 및 프로그램 환경 개선, 조사결과를 토대로 향후 사업방향 모색 등 조사내용을 근거로 정확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조사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 1) 욕구조사를 통하여 지역장애인 실태를 파악하고 조사된 자료를 정리하여 향후 정책방향제시를 위한 근거 자료로 활용한다.
- 2) 남동구 지역 욕구조사를 통하여 이용인의 욕구를 알아보고, 차기년도 및 중·단기 사업계획에 반영한다.
- 3) 욕구조사 보고서를 발간하여 이용인 중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기초 자료를 확보한다.

본 보고서는 2021년 8월에 실시된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실태에 관한 분석결과이다.

II. 조사 설계

1. 조사 대상 및 사례 수

2021년 8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 기관, 협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남동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남동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유형별 할당추출 후 2021년 6월 기준 복지관 연인원 유형별 할당추출 및 복지관 이용인원을 가중하여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장애유형은 각 응답수가 30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6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00명에게 배포되었으며,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한 기관 휴관, 이용인원 축소 등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2. 조사 도구 및 조사 내용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9 남동구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2021)」 및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2019),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20 지역장애인 욕

구조사 보고서(20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복지관 이용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2020)」,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장애인 생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2020)」의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고 외부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운영, 영역별 서비스 욕구(생애주기별),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자세한 조사내용은 [표Ⅱ-1]을 참고하면 된다.

[표Ⅱ-1] 설문지 내용

구분	문항수	내용
일반적 특성	12	응답자와의 관계, 성별, 연령, 경제수준, 결혼상태, 학력, 가구 월평균소득, 주택소유형태, 가족구성형태, 함께 사는 가족 수, 가족 중 장애인 수, 남동거주기간
장애 특성	3	주장애유형, 중복장애유형, 장애정도
개인적 문제	3	본인이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며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 가장 큰 어려움 순위, 어려움 발생 시 도움을 요청할 곳
복지관 운영	8	본 기관 이용유무, 이용기간, 알게 된 경로, 본 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복지관 선택기준,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코로나19 관련 필요 서비스, 코로나19 관련 복지관 운영방식
영역별 욕구	19	영유아(만6세 이하), 아동·청소년(만7세~18세 이하), 청년(만19세~38세 이하), 중장년(만39세~64세 이하), 노인(만65세 이상) 문화·여가 서비스(이용경험, 이용목적,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희망하는 서비스), 교육 서비스(이용경험, 이용목적,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희망하는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취업의향, 이용목적,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희망하는 직업재활서비스, 희망하는 직업훈련 및 기술교육,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생활(자립의향, 자립생활 중 가장 큰 어려움,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재가복지 서비스(가장 도움을 많이 받는 일상생활 지원처,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분야별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건의사항	1	지역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한 장애인복지관 건의사항
총문항	46	

3. 설문내용 및 문항의 신뢰도

신뢰도 검증은 설문문항들이 일관성을 갖고 적절히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는데, 아래의 [표Ⅱ-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일상생활 속 어려움에 대한 문항의 신뢰도 계수(α)가 .902로 신뢰도가 높게 나타났음을 알 수 있다.

[표Ⅱ-2] 설문문항 신뢰도

신뢰도 계수(α)	문항번호	문항수
.902	3(①~⑪)	11

4. 조사의 진행과 자료의 분석

1) 자료수집 방법 및 결과

자체 제작한 설문지를 담당자가 이용인들에게 직접 배부하거나 온라인 설문지를 발송하여 작성 후 설문지를 제출하는 방법을 통해 조사 자료를 수집하였다.

직접 설문 응답이 가능한 이용인들은 본인이 직접 작성하여 제출하였고, 직접 응답이 불가능한 이용인들의 경우는 주부양자들이 응답하였다.

[표Ⅱ-3] 설문지 배부 및 회수 현황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구분	설문지(명)
설문지 배부	500명
설문지 회수	300명
회 수 율(%)	60.0%

2) 조사 기간

이번 조사는 사업계획 수립과 설문지 배부 및 회수 등의 일련의 작업들이 6주간에 걸쳐 진행되었다. 사업계획 수립 및 설문지 개발은 7월 5일~7월 30일까지 진행되었으며, 설문지 배부 및 조사기간은 8월 11일~8월 31일까지 3주간 진행 되었다.

3)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 20.0 for Windows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기술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설문조사지의 모든 항목들은 빈도분석을 통해 그 구체적인 통계치를 산출하였고 이외에도 각 변수수준에 따라 분석방법을 변경하여 자료를 분석하였다.

2021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조사결과의 분석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조사결과의 분석

1. 응답자에 관한 일반적인 특성

1) 인구사회학적 특성

① 장애인과의 관계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59.7%(179명), 가족 35.3%(106명), 외부인 5.0%(15명)로 조사되었다.

[표 I-1] 장애인과의 관계

구분	빈도(명)	비율(%)
본인	179	59.7
가족	106	35.3
외부인	15	5.0
계	300	100.0

② 성별

성별 분포는 ‘남자’ 53.3%(160명), 여자 46.7%(140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6.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2] 성별

구분	빈도(명)	비율(%)
남자	160	53.3
여자	140	46.7
계	300	100.0

③ 연령

연령분포를 보면 0-9세 이하가 12.6%(37명), 10-19세 이하가 15.0%(44명), 20-29세 이하가 14.6%(43명), 30-39세 이하가 10.9%(32명), 40-49세 이하가 9.9%(29명), 50-59세 이하가 9.2%(27명), 60-69세 이하가 15.3%(45명), 70세 이상이 12.5%(37명)로 나타나 60-69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10-19세, 20-29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3] 연령

구분	빈도(명)	비율(%)
0-9세	37	12.6
10-19세	44	15.0
20-29세	43	14.6
30-39세	32	10.9
40-49세	29	9.9
50-59세	27	9.2
60-69세	45	15.3
70세-	37	12.5
계	294	100.0

결측값 제외(N=6)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20-29세 이하 응답자가 14.7%(23명), 여자는 70세 이상이 18.8%(26명)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남성은 60-69세 이하 17.3%(27명), 여성은 10-19세 이하 15.2%(21명)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응답자는 남성이 7.1%, 여성이 18.8%로 약 2배 이상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 연령별 성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4] 응답자의 연령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0-9세	20 12.8%	17 12.3%	37 12.6%
10-19세	23 14.7%	21 15.2%	44 15.1%
20-29세	28 18.0%	15 10.9%	43 14.6%
30-39세	20 12.8%	12 8.7%	32 10.9%
40-49세	14 9.0%	15 10.9%	29 9.7%
50-59세	13 8.3%	14 10.1%	27 9.2%
60-69세	27 17.3%	18 13.1%	45 15.3%
70세-	11 7.1%	26 18.8%	37 12.6%
계	156 100.0%	138 100.0%	294 100.0%

④ 경제수준

조사대상자의 경제수준을 보면 수급자 44.7%(134명), 차상위 7.3%(22명), 비수급자(일반) 48.0%(144명)로 나타났다.

[표 I -5] 경제수준

구분	빈도(명)	비율(%)
수급자	134	44.7
차상위	22	7.3
일반	144	48.0
계	300	100.0

⑤ 결혼상태

조사대상자의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64.3%(189명), 기혼이 13.6%(40명), 이혼이 9.2%(27명), 사별이 12.2%(36명), 별거 0.7%(2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 결혼상태

구분	빈도(명)	비율(%)
미혼	189	64.3
기혼	40	13.6
이혼	27	9.2
사별	36	12.2
별거	2	0.7
계	294	100.0

결측값 제외(N=6)

⑥ 학력

조사대상자의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14.4%(43명),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23.4%(70명), 중학교 재학·졸업이 15.7%(47명),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35.8%(107명), 대학교 재학·졸업이 8.4%(25명), 무학이 2.3%(7명)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 학력

구분	빈도(명)	비율(%)
미취학	43	14.4
초등학교 재학·졸업	70	23.4
중학교 재학·졸업	47	15.7
고등학교 재학·졸업	107	35.8
대학교 재학·졸업	25	8.4
무학	7	2.3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1)

⑦ 가구 월평균 총소득

조사대상자의 가구 월평균 총소득수준을 보면 100만원 미만인 42.3%(127명), 100-200만원 미만 16.0%(48명), 200-300만원 미만 20.0%(60명), 300-400만원 미만 15.0%(45명), 400-500만원 미만 5.7%(17명), 500만원 이상이 1.0%(3명)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 가구 총수입

구분	빈도(명)	비율(%)
-100만원 미만	127	42.3
100-200만원 미만	48	16.0
200-300만원 미만	60	20.0
300-400만원 미만	45	15.0
400-500만원 미만	17	5.7
500만원 이상-	3	1.0
계	300	100.0

⑧ 주거형태

조사대상자의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42.2%(124명), 전세 16.0%(47명), 월세 11.2%(33명), 영구임대 25.2%(74명), 기타 5.4%(16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그룹홈’에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표 I -9] 주거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자가	124	42.2
전세	47	16.0
월세	33	11.2
영구임대	74	25.2
기타	16	5.4
계	294	100.0

결측값 제외(N=6)

⑨ 가족구성 형태

조사대상자의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1인가구(독거) 27.3%(82명), 부부 7.3%(22명), 부부 + 자녀 41.3%(124명), 한부모+ 자녀 16.7%(50명), 조부모+ 부부+ 손자녀 4.0%(12명), 형제 3.4%(10명)로 나타나 부부+ 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표 I -10] 가족구성 형태

구분	빈도(명)	비율(%)
1인가구(독거)	82	27.3
부부	22	7.3
부부+ 자녀	124	41.3
한부모+ 자녀	50	16.7
조부모+ 부부+ 손자녀	12	4.0
형제	10	3.4
계	300	100.0

⑩ 함께 사는 가족 수

조사대상자의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보면 1명 26.0%(78명), 2명 20.0%(60명), 3명 23.0%(69명), 4명 25.3%(76명), 5명 3.3%(10명), 6명 2.4%(7명)로 나타났다.

[표 I -11] 함께 사는 가족 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78	26.0
2명	60	20.0
3명	69	23.0
4명	76	25.3
5명	10	3.3
6명	7	2.4
계	300	100.0

당사자 포함

⑪ 가족 내 장애인 수

조사대상자의 가족 내 장애인 수를 보면 1명이 88.0%(263명), 2명 12.0%(36명)로 나타나 가족 내 장애인 수가 1명인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2] 가족 내 장애인 수

구분	빈도(명)	비율(%)
1명	263	88.0
2명	36	12.0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1), 당사자 포함

⑬ 남동구 거주기간

조사대상자의 남동구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 4.2%(12명), 1년 초과~5년 이하 12.0%(34명), 5년 초과~10년 이하 23.7%(67명), 10년 초과 60.1%(170명)로 나타나 10년 초과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남동구 거주기간은 15.5년으로 나타났다.

[표 I-13] 남동구 거주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2	4.2
1년 초과~5년 이하	34	12.0
5년 초과~10년 이하	67	23.7
10년 초과	170	60.1
계	283	100.0

결측값 제외(N=17)

2) 장애관련 특성

① 주장애 유형

주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9.7%(59명), 시각장애 10.0%(30명), 뇌병변장애 13.0%(39명), 청각장애 10.0%(30명), 지적장애 27.0%(81명), 자폐성장애 10.3%(31명), 정신장애 10.0%(30명)로 나타나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4] 주장애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59	19.7
시각장애	30	10.0
뇌병변장애	39	13.0
청각장애	30	10.0
지적장애	81	27.0
자폐성장애	31	10.3
정신장애	30	10.0
계	300	100.0

※ 장애유형별 할당추출을 통해 6가지 유형에 대해서 표본조사 실시

② 중복장애 유형

중복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0.1%(10명), 시각장애 12.1%(12명), 뇌병변장애 12.1%(12명), 청각장애 7.1%(7명), 언어장애 24.2%(24명), 지적장애 23.3%(23명), 정신장애 6.1%(6명), 신장장애 1.0%(1명), 심장장애 2.0%(2명), 뇌전증장애 2.0%(2명)로 나타났다.

[표 I -15] 중복장애 유형

구분	빈도(명)	비율(%)
지체장애	10	10.1
시각장애	12	12.1
뇌병변장애	12	12.1
청각장애	7	7.1
언어장애	24	24.2
지적장애	23	23.3
정신장애	6	6.1
신장장애	1	1.0
심장장애	2	2.0
뇌전증장애	2	2.0
계	99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여성 둘 다 지적장애 응답자가 30.0%(48명), 23.6%(33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 여성 둘 다 지체장애가 18.1%(29명), 21.4%(30명)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는 남성이 15.6%, 여성이 4.3%로 약 3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구체적인 응답자 성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I -16]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

구분	성별		계
	남자	여자	
지체장애	29 18.1%	30 21.4%	59 19.7%
시각장애	15 9.4%	15 10.7%	30 10.0%
뇌병변장애	14 8.8%	25 17.9%	39 13.0%
청각장애	16 10.0%	14 10.0%	30 10.0%
지적장애	48 30.0%	33 23.6%	81 27.0%
자폐성장애	25 15.6%	6 4.3%	31 10.3%
정신장애	13 8.1%	17 12.1%	30 10.0%
계	160 100.0%	140 100.0%	300 100.0%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뇌병변장애가 48.6%(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지적장애 47.7%(21명), 20~29세는 지적장애 60.5%(26명), 30~39세는 지적장애 37.5%(12명), 40~49세는 지적장애 27.6%(8명), 50~59세는 지체장애 40.7%(11명), 60~69세는 지체장애 35.6%(16명), 70세~는 지체장애 35.1%(13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인 응답자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17]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

구분	연령								계
	0~9세	10~19세	20~29세	30~39세	40~49세	50~59세	60~69세	70세~	
지체장애	0 0.0%	1 2.3%	2 4.7%	8 25.0%	6 20.6%	11 40.7%	16 35.6%	13 35.1%	57 19.6%
시각장애	3 8.2%	4 9.1%	2 4.7%	0 0.0%	0 0.0%	0 0.0%	4 8.9%	16 43.2%	29 9.8%
뇌병변장애	18 48.6%	12 27.3%	0 0.0%	0 0.0%	1 3.5%	5 18.6%	3 6.7%	0 0.0%	39 13.3%
청각장애	0 0.0%	0 0.0%	1 2.3%	2 6.3%	4 13.8%	4 14.8%	13 28.9%	6 16.2%	30 10.2%
지적장애	5 13.5%	21 47.7%	26 60.5%	12 37.5%	8 27.6%	7 25.9%	1 2.2%	0 0.0%	80 27.2%
자폐성장애	11 29.7%	6 13.6%	9 20.9%	4 12.5%	1 3.5%	0 0.0%	0 0.0%	0 0.0%	31 10.4%
정신장애	0 0.0%	0 0.0%	3 6.9%	6 18.7%	9 31.0%	0 0.0%	8 17.8%	2 5.5%	28 9.5%
계	37 100%	44 100%	43 100%	32 100%	29 100%	27 100%	45 100%	37 100%	294

③ 장애 등급

조사 대상의 장애 등급 분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84.2%(250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8%(47명)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8] 장애등급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250	84.2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47	15.8
계	297	100.0

결측값 제외(N=3)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지적장애가 31.6%(79명), 지체장애 19.6%(49명), 뇌병변장애 13.2%(33명), 정신장애 11.6%(29명), 자폐성장애 10.8%(27명), 시각장애 7.2%(18명), 청각장애 6.0%(1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중증장애 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각각 25.5%(12명), 지체장애 21.3%(10명), 뇌병변장애 12.8%(6명), 자폐성장애 8.5%(4명), 지적장애 4.3%(2명), 정신장애 2.1%(1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경증장애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19] 응답자의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

구분	장애등급		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지체장애	49 19.6%	10 21.3%	59 19.9%
시각장애	18 7.2%	12 25.5%	30 10.1%
뇌병변장애	33 13.2%	6 12.8%	39 13.1%
청각장애	15 6.0%	12 25.5%	27 9.1%
지적장애	79 31.6%	2 4.3%	81 27.3%
자폐성장애	27 10.8%	4 8.5%	31 10.4%
정신장애	29 11.6%	1 2.1%	30 10.1%
계	250 100.0%	47 100.0%	297 100.0%

2. 욕구조사 결과

1) 개인적인 문제

① 경제적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경제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1.7%(5명), ‘어렵지 않다.’ 6.0%(18명), ‘보통이다.’ 29.3%(88명), ‘어렵다.’ 36.7%(110명), ‘매우 어렵다.’ 26.3%(79명)로 나타났다.

[표 I -20] 경제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5	1.7
어렵지 않다.	18	6.0
보통이다.	88	29.3
어렵다.	110	36.7
매우 어렵다.	79	26.3
계	300	100.0

② 취업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취업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8.3%(25명), ‘어렵지 않다.’ 4.3%(13명), ‘보통이다.’ 24.3%(73명), ‘어렵다.’ 30.0%(90명), ‘매우 어렵다.’ 33.1%(99명)로 나타났다.

[표 I -21] 취업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5	8.3
어렵지 않다.	13	4.3
보통이다.	73	24.3
어렵다.	90	30.0
매우 어렵다.	99	33.1
계	300	100.0

③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7%(17명), ‘어렵지 않다.’ 11.7%(35명), ‘보통이다.’ 28.9%(86명), ‘어렵다.’ 34.6%(103명), ‘매우 어렵다.’ 19.1%(57명)로 나타났다.

[표 I -22]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7	5.7
어렵지 않다.	35	11.7
보통이다.	86	28.9
어렵다.	103	34.6
매우 어렵다.	57	19.1
계	298	100.0

결측값 제외(N=2)

④ 교육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교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7.7%(23명), ‘어렵지 않다.’ 8.3%(25명), ‘보통이다.’ 35.0%(105명), ‘어렵다.’ 29.7%(89명), ‘매우 어렵다.’ 19.3%(58명)로 나타났다.

[표 I -23] 교육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3	7.7
어렵지 않다.	25	8.3
보통이다.	105	35.0
어렵다.	89	29.7
매우 어렵다.	58	19.3
계	300	100.0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4.0%(12명), ‘어렵지 않다.’ 6.7%(20명), ‘보통이다.’ 33.3%(100명), ‘어렵다.’ 33.0%(99명), ‘매우 어렵다.’ 23.0%(69명)로 나타났다.

[표 I -24]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2	4.0
어렵지 않다.	20	6.7
보통이다.	100	33.3
어렵다.	99	33.0
매우 어렵다.	69	23.0
계	300	100.0

⑥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16.7%(58명), ‘어렵지 않다.’ 28.8%(100명), ‘보통이다.’ 40.6%(141명), ‘어렵다.’ 10.1%(35명), ‘매우 어렵다.’ 3.8%(13명)로 나타났다.

[표 I -25]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23	7.7
어렵지 않다.	30	10.0
보통이다.	90	30.0
어렵다.	87	29.0
매우 어렵다.	70	23.3
계	300	100.0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가족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10.4%(31명), ‘어렵지 않다.’ 14.0%(42명), ‘보통이다.’ 39.5%(118명), ‘어렵다.’ 23.7%(71명), ‘매우 어렵다.’ 12.4%(37명)로 나타났다.

[표 I-26] 가족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31	10.4
어렵지 않다.	42	14.0
보통이다.	118	39.5
어렵다.	71	23.7
매우 어렵다.	37	12.4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1)

⑧ 심리적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심리적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3.7%(11명), ‘어렵지 않다.’ 6.7%(20명), ‘보통이다.’ 37.0%(110명), ‘어렵다.’ 36.4%(108명), ‘매우 어렵다.’ 16.2%(48명)로 나타났다.

[표 I-27] 심리적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1	3.7
어렵지 않다.	20	6.7
보통이다.	110	37.0
어렵다.	108	36.4
매우 어렵다.	48	16.2
계	297	100.0

결측값 제외(N=3)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대인관계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0%(15명), ‘어렵지 않다.’ 11.7%(35명), ‘보통이다.’ 32.3%(97명), ‘어렵다.’ 31.0%(93명), ‘매우 어렵다.’ 20.0%(60명)로 나타났다.

[표 I -28] 대인관계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5	5.0
어렵지 않다.	35	11.7
보통이다.	97	32.3
어렵다.	93	31.0
매우 어렵다.	60	20.0
계	300	100.0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일상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3%(16명), ‘어렵지 않다.’ 7.7%(23명), ‘보통이다.’ 30.3%(91명), ‘어렵다.’ 36.0%(108명), ‘매우 어렵다.’ 20.7%(62명)로 나타났다.

[표 I -29] 일상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6	5.3
어렵지 않다.	23	7.7
보통이다.	91	30.3
어렵다.	108	36.0
매우 어렵다.	62	20.7
계	300	100.0

⑪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개인적 문제에 대한 질문 중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전혀 어렵지 않다.” 5.3%(16명), ‘어렵지 않다.’ 6.7%(20명), ‘보통이다.’ 35.7%(107명), ‘어렵다.’ 34.0%(102명), ‘매우 어렵다.’ 18.3%(55명)로 나타났다.

[표 I -30]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전혀 어렵지 않다.	16	5.3
어렵지 않다.	20	6.7
보통이다.	107	35.7
어렵다.	102	34.0
매우 어렵다.	55	18.3
계	300	100.0

⑫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42.8%(122명)로 가장 많았고,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이 10.9%(31명)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이 18.0%(48명)로 가장 많았다. 구체적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분포는 아래와 같다.

[표 I -31]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순위

구분	1순위		2순위		계
	빈도(명)	비율(%)	빈도(명)	비율(%)	
경제적 어려움	122	42.8	33	12.4	155
취업의 어려움	28	9.8	42	15.9	70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4	1.4	17	6.3	21
교육의 어려움	12	4.2	9	3.3	21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31	10.9	48	18	79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	15	5.3	24	9.0	39
가족관계의 어려움	6	2.1	3	1.1	9
심리적 어려움	23	8.1	19	7.1	42
대인관계의 어려움	10	3.5	24	9.0	34
일상생활의 어려움	20	7.0	39	14.6	59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14	4.9	9	3.3	23
계	285	100.0	267	100.0	552

결측값 제외 1순위(N=15), 2순위(N=33)

⑬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스스로 해결’이 25.3%(75명), ‘가족 내에서 해결’ 47.1%(140명),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16.5%(49명),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2.4%(7명), ‘친구·이웃·종교 등에 도움 요청’이 4.4%(13명),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이 1.7%(5명), ‘기타’가 2.6%(8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 요양보호사 등의 응답이 있었다.

[표 I -32] 어려움 발생 시 도움 요청하는 곳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해결	75	25.3
가족 내에서 해결	140	47.1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49	16.5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7	2.4
친구·이웃·종교 등에 도움 요청	13	4.4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	5	1.7
기타	8	2.6
계	297	100.0

결측값 제외(N=3)

2) 복지관 운영

① 복지관 이용유무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예’ 81.7%(245명), ‘아니요’ 18.3%(5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80%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해왔다고 응답하였다.

[표 I -33] 복지관 이용유무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45	81.7
아니요	55	18.3
계	300	100.0

② 복지관 이용기간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기간에 대해 물었을 때, ‘1년 초과’ 12.7%(29명), ‘1년 초과~5년 이하’ 23.6%(54명), ‘5년 초과 10년 이하’ 42.8%(98명), ‘10년 초과’ 20.9%(48명)로 나타났다.

[표 I -34] 복지관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29	12.7
1년 초과~5년 이하	54	23.6
5년 초과~10년 이하	98	42.8
10년 초과	48	20.9
계	229	100.0

결측값 제외(N=16)

③ 알게 된 경로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11.7%(28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1.7%(4명), ‘인터넷(홈페이지)’ 7.5%(18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57.1%(137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16.3%(39명), ‘기타’ 5.7%(14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이 다니고 있어서’ 등이 있었다.

[표 I -35] 알게 된 경로

구분	빈도(명)	비율(%)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28	11.7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4	1.7
인터넷(홈페이지)	18	7.5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137	57.1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39	16.3
기타	14	5.7
계	240	100.0

결측값 제외(N=5)

④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33.3%(18명), ‘너무 멀어서’ 9.3%(5명),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14.8%(8명), ‘복지관 서비스 질이 안 좋아서’ 3.7%(2명),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13.0%(7명), ‘교통이 불편해서’ 9.3%(5명), ‘기타’ 16.6%(9명)로 나타났다.

[표 I -36] 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18	33.3
너무 멀어서	5	9.3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8	14.8
복지관 서비스 질이 안 좋아서	2	3.7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7	13.0
교통이 불편해서	5	9.3
기타	9	16.6
계	54	100.0

결측값 제외(N=1)

⑤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에 대해 물었을 때, ‘이동의 편리성(교통)’ 22.4%(67명), ‘프로그램의 다양성’ 28.4%(85명), ‘이용료’ 7.7%(23명), ‘이용 대기기간’ 2.3%(7명), ‘직원의 친절성’ 13.0%(39명), ‘편의시설 확충’ 4.7%(14명),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19.7%(59명), ‘기타’ 1.8%(5명)로 나타났으며. 기타의견으로는 ‘외부 평가’, ‘인식도’ 등이 있었다.

[표 I-37] 복지관 선택 시 가장 중요한 기준

구분	빈도(명)	비율(%)
이동의 편리성(교통)	67	22.4
프로그램의 다양성	85	28.4
이용료	23	7.7
이용 대기기간	7	2.3
직원의 친절성	39	13.0
편의시설 확충	14	4.7
프로그램 및 직원의 전문성	59	19.7
기타	5	1.8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1)

⑥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13.3%(76명),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8.2%(47명),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15.7%(90명), ‘문화·여가 기회 제공’ 12.7%(73명),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 13.3%(76명),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10.3%(59명),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4.5%(26명),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11.7%(67명),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2.4%(14명),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 7.3%(42명), ‘기타’ 0.6%(3명)로 나타났다.

[표 I-38]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76	13.3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47	8.2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90	15.7
문화·여가 기회 제공	73	12.7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	76	13.3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59	10.3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26	4.5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67	11.7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14	2.4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	42	7.3
기타	3	0.6
계	57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⑦ 코로나19 장기화 시, 지속 필요 서비스

코로나19 장기화 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전화상담’ 10.1%(30명), ‘재활정보 공유’ 14.8%(44명), ‘생활키트 전달’ 36.6%(109명), ‘방역물품 전달’ 16.8%(50명),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 17.4%(52명), ‘복지관 소식 관련 영상 제작’ 3.3%(10명), ‘기타’ 1.0%(3명)로 나타났다.

[표 I -39] 코로나19 장기화 시, 지속 필요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전화상담	30	10.1
재활정보 공유 (카톡, 페이스북, 밴드 등)	44	14.8
생활키트 전달(식료품 등)	109	36.6
방역물품 전달 (마스크, 손소독제 등)	50	16.8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 (미션챌린지, 영상통화 등)	52	17.4
복지관 소식 관련 영상 제작(유튜브)	10	3.3
기타	3	1.0
계	298	100.0

결측값 제외(N=2)

⑧ 코로나19 장기화 시, 복지관 운영

코로나19 장기화 시,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에 대해 물었을 때, ‘모두 중단’ 7.4%(22명), ‘1:1 수업만 진행’ 21.4%(64명), ‘10인 이하 프로그램 운영’ 34.8%(104명), ‘온라인 방식’ 8.7%(26명), ‘재가서비스 운영’ 18.7%(56명), ‘모두 이용’ 8.0%(24명), ‘기타’ 1.0%(3명)로 나타났다.

[표 I -40] 코로나19 장기화 시, 복지관 운영

구분	빈도(명)	비율(%)
모두 중단	22	7.4
1:1 수업만 진행	64	21.4
10인 이하 프로그램 운영	104	34.8
온라인 방식	26	8.7
재가서비스 운영	56	18.7
모두 이용	24	8.0
기타	3	1.0
계	299	100.0

결측값 제외(N=1)

3) 생애주기별 영역별 욕구

(1) 영유아 영역별 욕구

(1-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10.3%(3명), ‘아니요’가 89.7%(26명)로 나타났다. 영유아 나이가 낮아 이용경험이 아직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표 I-4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	10.3
아니요	26	89.7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2)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3명 모두 ‘1년 이하’로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3	100.0
계	3	100.0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또래와의 어울림’ 3.4%(1명), ‘사회성 향상’ 6.9%(2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0.7%(6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34.5%(10명), ‘다양한 체험’ 34.5%(10명)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체험’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3]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또래와의 어울림	1	3.4
사회성 향상	2	6.9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6	20.7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0	34.5
다양한 체험	10	34.5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2)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0.7%(6명), ‘긴 대기기간’ 37.9%(11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2%(5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3.4%(1명), ‘기타’ 20.8%(6명)로 ‘긴 대기기간’에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44]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6	20.7
긴 대기기간	11	37.9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5	17.2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	3.4
기타	6	20.8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2)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13.8%(8명), ‘문화체험’ 15.5%(9명), ‘나들이·여행’ 29.3%(17명), ‘스포츠 교실’ 19.0%(11명), ‘가족 프로그램’ 22.4%(13명)로 나타났으며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5]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8	13.8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9	15.5
나들이·여행	17	29.3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1	19.0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13	22.4
계	58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1-2)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아니요’가 100.0%(29명)로 아무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0	0.0
아니요	29	100.0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2)

②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48.3%(14명), ‘사회성 향상’ 13.8%(4명), ‘지식 향상’ 10.3%(3명), ‘다양한 체험’ 27.6%(8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7]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14	48.3
사회성 향상	4	13.8
지식 향상	3	10.3
다양한 체험	8	27.6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2)

③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긴 대기기간’ 31.0%(9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0.0%(34.5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0.3%(3명), ‘기타’ 24.2%(7명)로 나타났다.

[표 I-48]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긴 대기기간	9	31.0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0	34.5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3	10.3
기타	7	24.2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2)

④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3.9%(19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21.4%(12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28.6%(16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12.5%(7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3.6%(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4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19	33.9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2	21.4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16	28.6
학업보충 프로그램	7	12.5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2	3.6
계	5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 아동·청소년 영역별 욕구

(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0.4%(21명), ‘아니요’가 59.3%(31명)로 나타났다.

[표 I -50]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1	40.4
아니요	31	59.6
계	52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7.8%(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66.7%(12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5.5%(1명)로 나타났다.

[표 I -5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5	27.8
1년 초과 5년 이하	12	66.7
5년 초과 10년 이하	1	5.5
계	18	100.0

결측값 제외(N=3)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또래와의 어울림’ 24.0%(12명), ‘사회성 향상’ 20.0%(10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4.0%(12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6.0%(8명), ‘다양한 체험’ 16.0%(8명)로 나타났다.

[표 I -5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또래와의 어울림	12	24.0
사회성 향상	10	20.0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12	24.0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8	16.0
다양한 체험	8	16.0
계	50	100.0

결측값 제외(N=2)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10.0%(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0.0%(10명), ‘긴 대기기간’ 16.0%(8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2.0%(6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8.0%(9명), ‘기타’ 24.0%(12명)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호자가 같이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 ‘중증, 활동 제약이 있는 장애여서 참여가 어렵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53]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5	10.0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	20.0
긴 대기기간	8	16.0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6	12.0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9	18.0
기타	12	24.0
계	50	100.0

결측값 제외(N=2)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0.4%(20명), ‘문화 체험’ 12.2%(12명), ‘동아리활동’ 12.2%(12명), ‘나들이·여행’ 27.6%(27명), ‘스포츠 교실’ 10.2%(10명), ‘가족 프로그램’ 17.4%(17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54]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20	20.4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2	12.2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등)	12	12.2
나들이·여행	27	27.6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0	10.2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17	17.4
계	98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2)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36.5%(19명), ‘아니요’가 63.5%(33명)로 나타났다.

[표 I -55]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9	36.5
아니요	33	63.5
계	52	100.0

②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9.4%(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58.8%(10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1.8%(2명)로 나타났다.

[표 I -5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5	29.4
1년 초과 5년 이하	10	58.8
5년 초과 10년 이하	2	11.8
계	17	100.0

결측값 제외(N=2)

③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53.8%(28명), ‘사회성 향상’ 23.1%(12명), ‘지식 향상’ 5.8%(3명), ‘학업성적 향상’ 3.8%(2명), ‘다양한 체험’ 11.5%(6명), ‘자립능력 향상’ 2.0%(1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7]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28	53.8
사회성 향상	12	23.1
지식 향상	3	5.8
학업성적 향상	2	3.8
다양한 체험	6	11.5
자립능력 향상	1	2.0
계	52	100.0

④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7.7%(4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9.6%(5명), ‘긴 대기기간’ 28.8%(15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5.4%(8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21.2%(11명), ‘기타’ 17.3%(9명)로 나타났다.

[표 I -58]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4	7.7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5	9.6
긴 대기기간	15	28.8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8	15.4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1	21.2
기타	9	17.3
계	52	100.0

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3.7%(35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1.5%(12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0.8%(32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9.6%(10명), ‘안전 및 건강교육’ 1.9%(2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1.5%(12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1.0%(1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5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35	33.7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2	11.5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32	30.8
학업보충 프로그램	10	9.6
안전 및 건강교육	2	1.9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12	11.5
인권, 권익옹호교육	1	1.0
계	104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2-3) 직업재활 서비스

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9.6%(31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40.4%(21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1/2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0]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1	59.6
아니요	21	40.4
계	52	100.0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6.1%(5명), '취업 현장의 체험' 9.7(3명), '직업능력 향상' 12.9%(4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5.8%(8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9.4%(6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9.7%(3명), '기타' 6.4%(2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1]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5	16.1
취업현장의 체험	3	9.7
직업능력 향상	4	12.9
사회적응능력 향상	8	25.8
사회적 안정·소속감	6	19.4
삶의 보람 및 성취감	3	9.7
기타	2	6.4
계	31	100.0

③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9.4%(6명), ‘긴 대기기간’ 6.5%(2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9.0%(9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9.4%(6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9.7%(3명), ‘기타’ 16.0%(5명)로 나타났다.

[표 I -62]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6	19.4
긴 대기기간	2	6.5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9	29.0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6	19.4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	9.7
기타	5	16.0
계	31	100.0

④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6%(1명), ‘직업 적응훈련’ 32.3%(20명), ‘자격증 취득교육’ 16.1%(10명), ‘직업훈련’ 43.6%(27명), ‘직업훈련(공과훈련)’ 3.2%(2명), ‘취업알선 및 연계’ 3.2%(2명)로 나타났으며 ‘직업 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3]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1	1.6
직업적응훈련	20	32.3
자격증 취득교육	10	16.1
직업훈련	27	43.6
직업훈련(공과훈련)	2	3.2
취업알선 및 연계	2	3.2
계	6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9.7%(6명), ‘공예’ 1.6%(1명), ‘인쇄’ 14.5%(9명), ‘미용, 피부관리’ 4.8%(3명), ‘조리’ 24.2%(15명), ‘제과 제빵’ 24.2%(15명), ‘바리스타’ 16.2%(10명), ‘도배’ 4.8%(3명)로 나타났으며 ‘제과 제빵’과 ‘조리(양식, 한식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4]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구분	빈도(명)	비율(%)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6	9.7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1	1.6
인쇄(사진, 스크린)	9	14.5
미용, 피부관리	3	4.8
조리(양식, 한식 등)	15	24.2
제과 제빵	15	24.2
바리스타	10	16.2
도배	3	4.8
계	62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⑥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52.4%(11명), ‘나이가 어려서’ 33.3%(7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9.5%(2명),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4.8%(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 -6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장애정도가 심해서	11	52.4
나이가 어려서	7	33.3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2	9.5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1	4.8
계	21	100.0

결측값 제외(N=10)

(2-4) 자립생활

① 자립 의향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36.5%(19명), ‘아니요’가 63.5%(33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표 I-66] 자립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예	19	36.5
아니요	33	63.5
계	52	100.0

결측값 제외(N=15)

②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36.8%(7명), ‘경제적 어려움’ 21.1%(4명), ‘사회적 관계’ 10.5%(2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5.3%(1명), ‘응급상황 대처’ 15.8%(3명), ‘기타’ 10.5%(2명)로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67]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7	36.8
경제적 어려움	4	21.1
사회적 관계(이웃 등)	2	10.5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1	5.3
응급상황 대처	3	15.8
기타	2	10.5
계	19	100.0

③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13.2%(5명), ‘의료 재활 지원’ 15.8%(6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21.1%(8명), ‘주거 지원’ 15.8%(6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3.7%(9명), ‘보조기기 지원’ 5.2%(2명), ‘이동편의 지원’ 5.2%(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직업재활,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68]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지원	5	13.2
의료재활 지원	6	15.8
직업재활, 취업 지원	8	21.1
주거 지원	6	15.8
일상생활 활동 지원	9	23.7
보조기기 지원	2	5.2
이동편의 지원	2	5.2
계	38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④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84.8%(28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15.2(15)로 나타나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의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 -69]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경제, 일상생활 등)	28	84.8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5	15.2
계	33	100.0

(3) 청년 영역별 욕구

(3-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64.9%(48명), ‘아니요’가 35.1%(26명)로 나타났다.

[표 I -70]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48	64.9
아니요	26	35.1
계	74	100.0

②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9.7%(11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40.5%(15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5.4%(2명), ‘10년 초과’가 24.4%(9명)로 나타났다.

[표 I -7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1	29.7
1년 초과 5년 이하	15	40.5
5년 초과 10년 이하	2	5.4
10년 초과	9	24.4
계	37	100.0

결측값 제외(N=11)

③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17.8%(13명), ‘또래와의 어울림’ 19.2%(14명), ‘사회성 향상’ 23.3%(17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1.9%(16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6.8%(5명), ‘특기적성 개발’ 2.7%(2명), ‘다양한 체험’ 8.3%(6명)로 ‘사회성 향상’,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13	17.8
또래와의 어울림	14	19.2
사회성 향상	17	23.3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16	21.9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5	6.8
특기적성 개발	2	2.7
다양한 체험	6	8.3
계	73	100.0

결측값 제외(N=1)

④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15.9%(11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0.3%(14명), ‘긴 대기기간’ 17.4%(12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1.9%(22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1.6%(8명)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3]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11	15.9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4	20.3
긴 대기기간	12	17.4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2	31.9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8	11.6
기타	2	2.9
계	69	100.0

결측값 제외(N=5)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3.6%(34명), ‘문화 체험’ 19.4%(28명), ‘동아리활동’ 12.5%(18명), ‘나들이·여행’ 25.0%(36명), ‘스포츠 교실’ 13.2%(19명), ‘가족 프로그램’ 5.6%(8명), ‘기타’ 0.4%(1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4]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34	23.6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28	19.4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등)	18	12.5
나들이·여행	36	25.0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9	13.2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8	5.6
기타	1	0.7
계	144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3-2) 교육 서비스

① 교육 서비스 이용경험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66.2%(49명), ‘아니요’가 33.8%(25명)로 나타났다.

[표 I-75]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49	66.2
아니요	25	33.8
계	74	100.0

② 교육 서비스 이용기간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3.8%(10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50.0%(21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1.9%(5명), ‘10년 초과’가 14.3%(6명)로 나타났다.

[표 I-76]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10	23.8
1년 초과 5년 이하	21	50.0
5년 초과 10년 이하	5	11.9
10년 초과	6	14.3
계	42	100.0

결측값 제외(N=7)

③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26.4%(19명), ‘사회성 향상’ 15.3%(11명), ‘특기적성 개발’ 2.8%(2명), ‘지식 향상’ 6.9%(5명), ‘향후 취업준비’ 22.2%(16명), ‘다양한 체험’ 11.1%(8명), ‘자립능력 향상’ 15.3%(11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7]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능력 향상	19	26.4
사회성 향상	11	15.3
특기적성 개발	2	2.8
지식 향상	5	6.9
향후 취업준비	16	22.2
다양한 체험	8	11.1
자립능력 향상	11	15.3
계	72	100.0

결측값 제외(N=2)

④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20.9%(14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7.9%(12명), ‘긴 대기기간’ 22.4%(15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5.4%(17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1.9%(8명), ‘기타’ 1.5%(1명)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긴 대기기간’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78]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14	20.9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2	17.9
긴 대기기간	15	22.4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	25.4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8	11.9
기타	1	1.5
계	67	100.0

결측값 제외(N=7)

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16.4%(23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0.0%(14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19.3%(27명), ‘직업 및 적성 개발 교육’ 27.1%(38명), ‘안전 및 건강교육’ 9.3%(13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0.7%(15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6.4%(9명), ‘기타’ 0.8%(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 및 적성 개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이 있었다.

[표 I -79]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23	16.4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4	10.0
사회적응 프로그램 (지역사회시설 이용)	27	19.3
직업 및 적성 개발 교육	38	27.1
안전 및 건강교육	13	9.3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예술, 체육 등)	15	10.7
인권, 권익옹호교육	9	6.4
기타	1	0.8
계	140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3-3) 직업재활 서비스**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9.5%(58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20.5%(15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2/3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0]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8	79.5
아니요	15	20.5
계	73	100.0

결측값 제외(N=1)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9.0%(11명), '취업현장의 체험' 12.1%(7명), '직업능력 향상' 19.0%(11명), '취업 및 창업' 13.8%(8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7.6%(16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3.4%(2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5.1%(3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1]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11	19.0
취업현장의 체험	7	12.1
직업능력 향상	11	19.0
취업 및 창업	8	13.8
사회적응능력 향상	16	27.6
사회적 안정·소속감	2	3.4
삶의 보람 및 성취감	3	5.1
계	58	100.0

③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20.0%(11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9%(6명), ‘긴 대기기간’ 14.5%(8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7.3%(4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4.5%(8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2.8%(18명)로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2]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11	20.0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6	10.9
긴 대기기간	8	14.5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4	7.3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8	14.5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18	32.8
계	55	100.0

결측값 제외(N=3)

④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7.0%(8명), ‘직업적응훈련’ 28.9%(33명), ‘자격증 취득교육’ 8.8%(10명), ‘직업훈련’ 17.5%(20명), ‘직업훈련(공과훈련)’ 7.1%(8명), ‘취업알선 및 연계’ 29.8%(34명), ‘기타’ 0.9%(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3]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8	7.0
직업적응훈련	33	28.9
자격증 취득교육	10	8.8
직업훈련	20	17.5
직업훈련(공과훈련)	8	7.1
취업알선 및 연계	34	29.8
기타	1	0.9
계	114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17.6%(19명), ‘공예’ 6.5%(7명), ‘인쇄’ 4.6%(5명), ‘미용, 피부관리’ 4.6%(5명), ‘조리’ 6.5%(7명), ‘제과 제빵’ 25.9%(28명), ‘바리스타’ 26.9%(29명), ‘도배’ 1.9%(2명), ‘기타’ 5.5%(6명)로 나타났으며 ‘바리스타’와 ‘제과 제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작업’, ‘택배’, ‘안마사’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84]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구분	빈도(명)	비율(%)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19	17.6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7	6.5
인쇄(사진, 스크린)	5	4.6
미용, 피부관리	5	4.6
조리(양식, 한식 등)	7	6.5
제과 제빵	28	25.9
바리스타	29	26.9
도배	2	1.9
기타	6	5.5
계	108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⑥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현재 직장이 있어서’가 7.7%(1명), ‘장애정도가 심해서’ 69.2%(9명), ‘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7.7%(1명), ‘급여가 낮아서’ 7.7%(1명),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7.7%(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표 I-8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직장이 있어서	1	7.7
장애정도가 심해서	9	69.2
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1	7.7
급여가 낮아서	1	7.7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1	7.7
계	13	100.0

결측값 제외(N=2)

(3-4) 자립생활

① 자립 의향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59.5%(44명), ‘아니요’가 40.5%(30명)로 나타났다.

[표 I-86] 자립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예	44	59.5
아니요	30	40.5
계	74	100.0

②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23.9%(11명), ‘경제적 어려움’ 39.1%(18명), ‘건강관리’ 10.9%(5명), ‘사회적 관계’ 15.2%(7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8.7%(4명), ‘응급상황 대처’ 2.2%(1명)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87]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11	23.9
경제적 어려움	18	39.1
건강관리	5	10.9
사회적 관계(이웃 등)	7	15.2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4	8.7
응급상황 대처	1	2.2
계	46	100.0

결측값 제외(N=15)

③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29.1%(25명), ‘의료 재활 지원’ 4.6%(4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26.7%(23명), ‘주거 지원’ 14.0%(12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4.4%(21명), ‘이동편의 지원’ 1.2%(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88]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지원	25	29.1
의료재활 지원	4	4.6
직업재활, 취업 지원	23	26.7
주거 지원	12	14.0
일상생활 활동 지원	21	24.4
이동편의 지원	1	1.2
계	8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④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72.4%(21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7.6(8명)로 나타나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이 응답의 2/3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 -89]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경제, 일상생활 등)	21	72.4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8	27.6
계	29	100.0

결측값 제외(N=1)

(4) 중장년 영역별 욕구

(4-1)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4.2%(38명), ‘아니요’가 55.8%(48명)로 나타났다.

[표 I -90]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8	44.2
아니요	48	55.8
계	86	100.0

결측값 제외(N=1)

②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13.9%(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8.9%(14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30.6%(11명), ‘10년 초과’가 16.6%(6명)로 나타났다.

[표 I -91]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이하	5	13.9
1년 초과 5년 이하	14	38.9
5년 초과 10년 이하	11	30.6
10년 초과	6	16.6
계	36	100.0

결측값 제외(N=2)

③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35.6%(31명), ‘또래와의 어울림’ 9.2%(8명), ‘사회성 향상’ 10.3%(9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0.7%(18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5.7%(5명), ‘다양한 체험’ 17.3%(15명), ‘기타’ 1.2%(1명)로 ‘여가시간 활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2]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31	35.6
또래와의 어울림	8	9.2
사회성 향상	9	10.3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18	20.7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5	5.7
다양한 체험	15	17.3
기타	1	1.2
계	87	100.0

④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17.6%(1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6.5%(14명), ‘긴 대기기간’ 7.1%(6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5.3%(30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9.4%(8명), ‘기타’ 14.1%(12명)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장애 정도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활동 지원사 필요’ 등이 있었다.

[표 I -93]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15	17.6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4	16.5
긴 대기기간	6	7.1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0	35.3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8	9.4
기타	12	14.1
계	85	100.0

결측값 제외(N=2)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8.1%(43명), ‘문화체험’ 25.5%(39명), ‘동아리활동’ 4.6%(7명), ‘나들이·여행’ 28.1%(43명), ‘스포츠 교실’ 8.5%(13명), ‘가족 프로그램’ 3.9%(6명), ‘기타’ 1.3%(2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4]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43	28.1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39	25.5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등)	7	4.6
나들이·여행	43	28.1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13	8.5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6	3.9
기타	2	1.3
계	153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4-2) 직업재활 서비스

① 향후 취업 의사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44.8%(39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55.2%(48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1/2 이상이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이라 취업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표 I-95] 향후 취업 의사

구분	빈도(명)	비율(%)
예	39	44.8
아니요	48	55.2
계	87	100.0

②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5.4%(6명), '취업현장의 체험' 15.4%(6명), '직업능력 향상' 10.3%(4명), '취업 및 창업' 12.8%(5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12.8%(5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5.4%(6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7.9%(7명)로 나타났다.

[표 I-96]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훈련	6	15.4
취업현장의 체험	6	15.4
직업능력 향상	4	10.3
취업 및 창업	5	12.8
사회적응능력 향상	5	12.8
사회적 안정·소속감	6	15.4
삶의 보람 및 성취감	7	17.9
계	39	100.0

③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23.1%(9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3%(4명), ‘긴 대기기간’ 2.6%(1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2.8%(5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7.9%(7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3.3%(13명)로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97]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9	23.1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4	10.3
긴 대기기간	1	2.6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5	12.8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7	17.9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13	33.3
계	39	100.0

④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0.3%(7명), ‘직업적응훈련’ 25.0%(17명), ‘자격증 취득교육’ 14.7%(10명), ‘직업훈련’ 16.2%(11명), ‘직업훈련(공과훈련)’ 4.4%(3명), ‘취업알선 및 연계’ 27.9%(19명), ‘기타’ 1.5%(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연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98]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직업상담 및 평가	7	10.3
직업적응훈련	17	25.0
자격증 취득교육	10	14.7
직업훈련	11	16.2
직업훈련(공과훈련)	3	4.4
취업알선 및 연계	19	27.9
기타	1	1.5
계	68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23.0%(14명), ‘공예’ 18.0%(11명), ‘인쇄’ 4.9%(3명), ‘미용, 피부관리’ 6.6%(4명), ‘조리’ 1.6%(1명), ‘제과 제빵’ 16.4%(10명), ‘바리스타’ 21.3%(13명), ‘기타’ 8.2%(5명)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과 ‘바리스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포장’, ‘옷수선’, ‘일반사무직’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99]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구분	빈도(명)	비율(%)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14	23.0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11	18.0
인쇄(사진, 스크린)	3	4.9
미용, 피부관리	4	6.6
조리(양식, 한식 등)	1	1.6
제과 제빵	10	16.4
바리스타	13	21.3
기타	5	8.2
계	61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⑥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현재 직장이 있어서’가 14.6%(7명), ‘장애정도가 심해서’ 56.3%(27명), ‘나이가 많아서’ 14.6%(7명),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2.1%(1명),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0.3%(5명), ‘기타’ 2.1%(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 양육때문에’, ‘혼자 살아서 수급비로 만족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표 I -100]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직장이 있어서	7	14.6
장애정도가 심해서	27	56.3
나이가 많아서	7	14.6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1	2.1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5	10.3
기타	1	2.1
계	48	100.0

(4-3) 자립생활

① 자립 의향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67.8%(59명), ‘아니요’가 32.2%(28명)로 나타났다.

[표 I -101] 자립 의향

구분	빈도(명)	비율(%)
예	59	67.8
아니요	28	32.2
계	87	100.0

②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15.3%(9명), ‘경제적 어려움’ 54.2%(32명), ‘건강관리’ 27.1%(16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3.4%(2명)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02]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

구분	빈도(명)	비율(%)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9	15.3
경제적 어려움	32	54.2
건강관리	16	27.1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2	3.4
계	59	100.0

③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30.5%(29명), ‘의료재활 지원’ 20.0%(19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15.8%(15명), ‘주거 지원’ 9.5%(9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0.0%(19명), ‘보조기기 지원’ 1.1%(1명), ‘이동편의 지원’ 2.0%(2명), ‘기타’ 1.1%(1명)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03]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적 지원	29	30.5
의료재활 지원	19	20.0
직업재활, 취업 지원	15	15.8
주거 지원	9	9.5
일상생활 활동 지원	19	20.0
보조기기 지원	1	1.1
이동편의 지원	2	2.0
기타	1	1.1
계	95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④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현재 자립 중이어서’가 32.1%(9명),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46.4%(13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1.4(6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표 I-104]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

구분	빈도(명)	비율(%)
현재 자립 중이어서	9	32.1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경제, 일상생활 등)	13	46.4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6	21.4
계	28	99.9.0

(5) 노인 영역별 욕구

(5-1)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①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3.1%(25명), ‘아니요’가 56.9%(33명)로 나타났다.

[표 I -105]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경험

구분	빈도(명)	비율(%)
예	25	43.1
아니요	33	56.9
계	58	100.0

②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초과 5년 이하’가 72.0%(18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8.0%(2명), ‘10년 초과’가 20.0%(5명)로 나타났다.

[표 I -106]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기간

구분	빈도(명)	비율(%)
1년 초과 5년 이하	18	72.0
5년 초과 10년 이하	2	8.0
10년 초과	5	20.0
계	25	100.0

③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37.9%(22명), ‘또래와의 어울림’ 6.9%(4명), ‘사회성 향상’ 5.2%(3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5.9%(15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3.4%(2명), ‘특기적성 개발’ 5.2%(3명), ‘다양한 체험’ 12.1%(7명), ‘기타’ 3.4%(2명)로 ‘여가시간 활용’,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07]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목적

구분	빈도(명)	비율(%)
여가시간 활용	22	37.9
또래와의 어울림	4	6.9
사회성 향상	3	5.2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15	25.9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2	3.4
특기적성 개발	3	5.2
다양한 체험	7	12.1
기타	2	3.4
계	58	100.0

④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8.6%(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7.2%(10명), ‘긴 대기기간’ 1.7%(1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7.6%(16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2.1%(7명), ‘기타’ 32.8%(19명)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거동불편‘, ’건강 문제‘ 등의 의견이 많이 나타나 높은 연령으로 이동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표 I -108]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

구분	빈도(명)	비율(%)
이용료에 대한 부담	5	8.6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	17.2
긴 대기기간	1	1.7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6	27.6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7	12.1
기타	19	32.8
계	58	100.0

⑤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33.0%(31명), ‘문화체험’ 17.0%(16명), ‘동아리활동’ 7.4%(7명), ‘나들이·여행’ 30.9%(29명), ‘스포츠 교실’ 4.3%(4명), ‘가족 프로그램’ 5.3%(5명), ‘기타’ 2.1%(2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

[표 I -109]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취미교양(음악, 공예 등 취미생활)	31	33.0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등)	16	17.0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등)	7	7.4
나들이·여행	29	30.9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요가 등)	4	4.3
가족 프로그램 (가족캠프 형제자매프로그램 등)	5	5.3
기타	2	2.1
계	94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5-2) 재가복지 서비스

①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원받지 않음’ 6.9%(4명), ‘활동지원사’ 12.1%(7명), ‘요양보호사’ 46.6%(27명), ‘가족, 친인척’ 34.5%(20명)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I-110]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

구분	빈도(명)	비율(%)
지원받지 않음	4	6.9
활동지원사	7	12.1
요양보호사	27	46.6
가족, 친인척	20	34.5
계	58	100.1.0

②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경제지원’ 37.7%(40명), ‘일상생활지원’ 24.5%(26명), ‘정서지원’ 6.6%(7명), ‘주거지원’ 2.8%(3명), ‘건강지원’ 10.4%(11명), ‘문화여가지원’ 9.4%(10명), ‘재활정보 제공’ 8.6%(9명)로 나타나 ‘경제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표 I-111]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경제지원	40	37.7
일상생활지원	26	24.5
정서지원	7	6.6
주거지원	3	2.8
건강지원	11	10.4
문화여가지원	10	9.4
재활정보 제공	9	8.6
계	106	100.0

※ 이 값은 중복 응답을 포함한 결과값임.

③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생계비, 생활비 지원 56.9%(33명), 의료비 지원 6.9%(4명), 반찬, 생필품 지원 36.2%(21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생계비,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2]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생계비, 생활비 지원	33	56.9
의료비 지원	4	6.9
반찬, 생필품 지원	21	36.2
계	58	100.0

④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가사 지원 51.7%(30명), 이미용 서비스 15.5%(9명), 목욕 지원 1.7%(1명), 외출 지원 15.5%(9명), 보장구 대여 12.1%(7명), 기타 3.5%(2명)로 나타났다. 그 중 ‘가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3]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가사 지원	30	51.7
이미용 서비스	9	15.5
목욕 지원	1	1.7
외출 지원	9	15.5
보장구 대여	7	12.1
기타	2	3.5
계	58	100.0

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상담서비스 31.0%(18명), 말벗 지원 24.1%(14명), 안부전화 20.7%(12명), 동료상담 19.0%(11명), 기타 5.2%(3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4]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상담서비스	18	31.0
말벗 지원	14	24.1
안부전화	12	20.7
동료상담	11	19.0
기타	3	5.2
계	58	100.0

⑥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도배/장판 지원 8.6%(5명), 집수리 지원 20.7%(12명),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10.3%(6명), 청소, 소독 지원 56.9%(33명), 기타 3.5%(2명)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 소독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5]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도배/장판 지원	5	8.6
집수리 지원	12	20.7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6	10.3
청소, 소독 지원	33	56.9
기타	2	3.5
계	58	100.0

⑦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건강검진이 51.7%(30명), 건강교육 24.1%(4명), 재활프로그램 지원 12.1%(7명), 체력단련실 운영 6.9%(4명), 혈압, 혈당 관리 5.2%(3명)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안마’가 있었다.

[표 I -116]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건강검진	30	51.7
건강교육	14	24.1
재활프로그램 지원	7	12.1
체력단련실 운영	4	6.9
혈압, 혈당 관리	3	5.2
계	58	100.0

⑧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나들이 46.6%(27명), 공연, 영화 관람 5.2%(3명), 취미교실 39.7%(23명), 자조모임 3.4%(2명), 기타 5.1%(3명)로 나타났다. 그 중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취미교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I -117]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

구분	빈도(명)	비율(%)
나들이	27	46.6
공연, 영화 관람	3	5.2
취미교실	23	39.7
자조모임	2	3.4
기타	3	5.1
계	58	100.0

4) 건의사항

서술형으로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라고 물어본 결과, 여러 응답이 나왔으며 내용을 추려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 의료 관련,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기타 의견 4가지로 분류하였다. 세부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장애인복지 프로그램 및 서비스 관련(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의견 포함)

- 청소년, 성인 장애인 대상 프로그램 확대
- 뇌병변, 최중증 장애인 대상 또는 장애 유형별 프로그램 확대
- 일상생활 능력 및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 자립생활 서비스, 취업과 관련된 교육 및 훈련의 다양성 희망
- 학령기 교육이나 취업에 국한되지 않은 장애당사자의 평생교육 신설
-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유형과 특성에 맞는 개별 프로그램 신설(신체, 직업 등의 개개인 특성을 살릴 수 있는 기회 확대)

② 의료재활 서비스 관련

- 소아치료 외의 청소년,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재활 치료 서비스 필요(병원에서도 소아치료에만 열중)
- 보건소에서 장애인 물리치료나 치과 검진, 기타 질병 치료의 범위 확대 및 적극적 자세 필요
- 장애인 치과 검진, 물리치료, 간단한 응급치료를 전담하는 소규모 치료시설 필요

③ 전반적인 장애인복지 관련

- 다양한 직업훈련 정보 제공 및 연령대별 다양한 근무지 희망
- 요양보호 시간 확대 및 활동지원사 인력 확대 또는 은행업무, 마트 등 간단한 동행을 함께 할 인력 확충 희망
- 조현병 환우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프로그램 마련
- 장애인 예산 증액 희망
- 장애인 권익 증진과 인식개선 필요
- 장애인 수 증가에 비해 이용시설(복지시설, 재활병원 등)은 턱없이 부족하여, 제때 교육과 재활을 받지 못해 기회를 잃는 현실이 안타까움. 장애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 재활병원 등 다중 시설 필요

④ 기타 의견

- 코로나19 함께 이겨내고 극복하자는 응원메세지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직원 칭찬

2021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요약 및 제언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요약 및 제언

1. 요약

2021년 9월 현재 복지관을 이용하고 있는 이용 장애인 및 재가 장애인, 타 기관, 협회 및 행정복지센터 등을 이용하는 장애인 중 남동구 거주자를 대상으로 욕구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21년 6월 기준 남동구 거주 등록 장애인 중 유형별 할당추출 후 2021년 6월 기준 복지관 연인원 유형별 할당추출 및 복지관 이용인원을 가중하여 조사 대상을 최종 선정하였다. 장애유형은 각 응답수가 30건을 충족할 수 있는 지체장애, 시각장애, 뇌병변장애, 청각장애, 지적장애, 자폐성장애, 정신장애 6가지 유형을 선정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500명에게 배포되었으며, 코로나19 단계 격상으로 인한 기관 휴관, 이용인원 축소 등 회수율이 저조하였다.

본 연구의 조사도구는 2019 남동구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를 바탕으로, 「보건복지부, 2020년 장애인실태조사(2021)」 및 「도봉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도봉구 장애인 복지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2019)」, 「인천장애인종합복지관, 2020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202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복지관 이용자 생활실태 및 욕구조사(2020)」, 「평택복지재단, 평택시 장애인 생활 및 복지욕구조사 연구(2020)」의 설문문항을 일부 반영하고 외부 자문을 통해 설문지를 복지관 상황에 맞게 문항을 재구성하였으며 명목척도, 리커트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일반적 특성, 장애 특성, 개인적 문제, 복지관 운영, 영역별 서비스 욕구(생애주기별), 건의사항 등 기관에서 파악하고자하는 욕구를 알기위해 각 부분별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1) 응답자의 일반적인 사항

■ 인구사회학적 특성 ■

장애인과의 관계에서는 본인 59.7%(179명), 가족 35.3%(106명), 외부인 5.0%(15명)로 조사되었다.

성별 분포는 ‘남자’ 53.3%(160명), 여자 46.7%(140명)로 조사되어 남자가 여자보다 6.6%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분포를 보면 0-9세 이하가 12.6%(37명), 10-19세 이하가 15.0%(44명), 20-29세 이하가 14.6%(43명), 30-39세 이하가 10.9%(32명), 40-49세 이하가 9.9%(29명), 50-59세 이하가 9.2%(27명), 60-69세 이하가 15.3%(45명), 70세 이상이 12.5%(37명)로 나타나 60-69세 이하 연령대가 가장 많은 분포도를 보이고

그 다음으로 10-19세, 20-29세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자는 20-29세 이하 응답자가 14.7%(23명), 여자는 70세 이상이 18.8%(26명)로 가장 많았으며, 두 번째로 남성은 60-69세 이하 17.3%(27명), 여성은 10-19세 이하 15.2%(21명)로 높은 빈도를 차지했다. 70세 이상 응답자는 남성이 7.1%, 여성이 18.8%로 약 2배 이상 여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경제수준을 보면 수급자 44.7%(134명), 차상위 7.3%(22명), 비수급자(일반) 48.0%(144명)로 나타났다.

결혼상태를 보면 미혼이 64.3%(189명), 기혼이 13.6%(40명), 이혼이 9.2%(27명), 사별이 12.2%(36명), 별거 0.7%(2명)로 나타나 미혼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학력 수준은 미취학이 14.4%(43명), 초등학교 재학·졸업이 23.4%(70명), 중학교 재학·졸업이 15.7%(47명),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35.8%(107명), 대학교 재학·졸업이 8.4%(25명), 무학이 2.3%(7명)로 고등학교 재학·졸업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구 월평균 총소득수준을 보면 100만원 미만 42.3%(127명), 100-200만원 미만 16.0%(48명), 200-300만원 미만 20.0%(60명), 300-400만원 미만 15.0%(45명), 400-500만원 미만 5.7%(17명), 500만원 이상이 1.0%(3명)로 나타나 100만원 미만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형태를 보면 자가가 42.2%(124명), 전세 16.0%(47명), 월세 11.2%(33명), 영구임대 25.2%(74명), 기타 5.4%(16명)로 나타나 자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응답에는 ‘그룹홈’에 거주 중이라는 응답이 있었다.

가족구성형태를 보면 1인가구(독거) 27.3%(82명), 부부 7.3%(22명), 부부+자녀 41.3%(124명), 한부모+자녀 16.7%(50명), 조부모+부부+손자녀 4.0%(12명), 형제 3.4%(10명)로 나타나 부부+자녀가 가장 많은 분포를 나타냈다.

함께 사는 가족 수를 보면 1명 26.0%(78명), 2명 20.0%(60명), 3명 23.0%(69명), 4명 25.3%(76명), 5명 3.3%(10명), 6명 2.4%(7명)로 나타났다.

가족 내 장애인 수를 보면 1명이 88.0%(263명), 2명 12.0%(36명)로 나타나 가족 내 장애인 수가 1명인 가정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남동구 거주기간을 살펴보면 1년 이하 4.2%(12명), 1년 초과~5년 이하 12.0%(34명), 5년 초과~10년 이하 23.7%(67명), 10년 초과 60.1%(170명)로 나타나 10년 초과 거주자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남동구거주기간은 15.5년으로 나타났다.

■ 장애관련 특성 ■

주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9.7%(59명), 시각장애 10.0%(30명), 뇌병변장애 13.0%(39명), 청각장애 10.0%(30명), 지적장애 27.0%(81명), 자폐성장애 10.3%(31명), 정신장애 10.0%(30명)로 나타나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복장애 유형으로는 지체장애 10.1%(10명), 시각장애 12.1%(12명), 뇌병변장애 12.1%(12명), 청각장애 7.1%(7명), 언어장애 24.2%(24명), 지적장애 23.3%(23명), 정신장애 6.1%(6명), 신장장애 1.0%(1명), 심장장애 2.0%(2명), 뇌전증장애 2.0%(2명)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성별 분포를 보면 남성, 여성 둘 다 지적장애 응답자가 30.0%(48명), 23.6%(33명)로 가장 높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다. 다음으로 남성, 여성 둘 다 지체장애가 18.1%(29명), 21.4%(30명)로 응답자가 가장 많았다. 자폐성장애는 남성이 15.6%, 여성이 4.3%로 약 3배 이상 남성 응답자가 더 많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장애유형별 연령별 분포에서 0~9세는 뇌병변장애가 48.6%(18명)으로 가장 많았고, 10~19세는 지적장애 47.7%(21명), 20~29세는 지적장애 60.5%(26명), 30~39세는 지적장애 37.5%(12명), 40~49세는 지적장애 27.6%(8명), 50~59세는 지체장애 40.7%(11명), 60~69세는 지체장애 35.6%(16명), 70세~는 지체장애 35.1%(13명)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 등급 분포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84.2%(250명),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15.8%(47명)로 나타나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4/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유형별 등급별 분포를 살펴보면,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에서 지적장애가 31.6%(79명), 지체장애 19.6%(49명), 뇌병변장애 13.2%(33명), 정신장애 11.6%(29명), 자폐성장애 10.8%(27명), 시각장애 7.2%(18명), 청각장애 6.0%(1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중증장애 중 지적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에서는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각각 25.5%(12명), 지체장애 21.3%(10명),

뇌병변장애 12.8%(6명), 자폐성장애 8.5%(4명), 지적장애 4.3%(2명), 정신장애 2.1%(1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경증장애 중 시각장애, 청각장애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욕구조사결과

■ 개인적 문제 ■

경제적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1.7%(5명), ‘어렵지 않다.’ 6.0%(18명), ‘보통이다.’ 29.3%(88명), ‘어렵다.’ 36.7%(110명), ‘매우 어렵다.’ 26.3%(79명)로 나타났다.

취업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8.3%(25명), ‘어렵지 않다.’ 4.3%(13명), ‘보통이다.’ 24.3%(73명), ‘어렵다.’ 30.0%(90명), ‘매우 어렵다.’ 33.1%(99명)로 나타났다.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5.7%(17명), ‘어렵지 않다.’ 11.7%(35명), ‘보통이다.’ 28.9%(86명), ‘어렵다.’ 34.6%(103명), ‘매우 어렵다.’ 19.1%(57명)로 나타났다.

교육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7.7%(23명), ‘어렵지 않다.’ 8.3%(25명), ‘보통이다.’ 35.0%(105명), ‘어렵다.’ 29.7%(89명), ‘매우 어렵다.’ 19.3%(58명)로 나타났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4.0%(12명), ‘어렵지 않다.’ 6.7%(20명), ‘보통이다.’ 33.3%(100명), ‘어렵다.’ 33.0%(99명), ‘매우 어렵다.’ 23.0%(69명)로 나타났다.

가족 부양, 양육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16.7%(58명), ‘어렵지 않다.’ 28.8%(100명), ‘보통이다.’ 40.6%(141명), ‘어렵다.’ 10.1%(35명), ‘매우 어렵다.’ 3.8%(13명)로 나타났다.

가족관계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10.4%(31명), ‘어렵지 않다.’ 14.0%(42명), ‘보통이다.’ 39.5%(118명), ‘어렵다.’ 23.7%(71명), ‘매우 어렵다.’ 12.4%(37명)로 나타났다.

심리적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3.7%(11명), ‘어렵지 않다.’ 6.7%(20명), ‘보

통이다.’ 37.0%(110명), ‘어렵다.’ 36.4%(108명), ‘매우 어렵다.’ 16.2%(48명)로 나타났다.

대인관계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5.0%(15명), ‘어렵지 않다.’ 11.7%(35명), ‘보통이다.’ 32.3%(97명), ‘어렵다.’ 31.0%(93명), ‘매우 어렵다.’ 20.0%(60명)로 나타났다.

일상생활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5.3%(16명), ‘어렵지 않다.’ 7.7%(23명), ‘보통이다.’ 30.3%(91명), ‘어렵다.’ 36.0%(108명), ‘매우 어렵다.’ 20.7%(62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은 “전혀 어렵지 않다.’ 5.3%(16명), ‘어렵지 않다.’ 6.7%(20명), ‘보통이다.’ 35.7%(107명), ‘어렵다.’ 34.0%(102명), ‘매우 어렵다.’ 18.3%(55명)로 나타났다.

일상생활 중 가장 어려운 1순위는 경제적 어려움이 42.8%(122명)로 가장 많았고,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이 10.9%(31명)로 나타났다. 2순위에서는 취업의 어려움이 18.0%(48명)로 가장 많았다.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는 지 물었을 때 ‘스스로 해결’이 25.3%(75명), ‘가족 내에서 해결’ 47.1%(75명), ‘행정복지센터·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16.5%(49명),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2.4%(7명), ‘친구·이웃·종교 등에 도움 요청’이 4.4%(13명),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이 1.7%(5명), ‘기타’가 2.6%(8명)로 나타나 ‘가족에게 도움 요청’의 응답이 가장 많았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병원, 요양보호사 등의 응답이 있었다.

■ 복지관 운영 ■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유무에 대해 물었을 때, ‘예’ 81.7%(245명), ‘아니요’ 18.3%(55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80%이상이 복지관을 이용해봤다고 응답하였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이용기간에 대해 물었을 때, ‘1년 초과’ 12.7%(29명), ‘1년 초과~5년 이하’ 23.6%(54명), ‘5년 초과 10년 이하’ 42.8%(98명), ‘10년 초과’ 20.9%(48명)로 나타났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알게 된 경로에 대해 물었을 때, ‘복지관의 홍보물을 통해.’ 11.7%(28명), ‘신문, 방송 등 언론매체’ 1.7%(4명), ‘인터넷(홈페이지)’ 7.5%(18명), ‘이웃의 소개나 권유로’ 57.1%(137명), ‘직접 전화해서 물어봐서’ 16.3%(39명), ‘기

타’ 5.7%(14명)로 나타났으며, 기타 의견으로는 ‘가족이 다니고 있어서’ 등이 있었다.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 물었을 때, ‘복지관이 있는지 잘 몰라서’ 33.3%(18명), ‘너무 멀어서’ 9.3%(5명), ‘집안일이나 외부활동에 바빠서’ 14.8%(8명), ‘복지관 서비스 질이 안 좋아서’ 3.7%(2명), ‘건강상 거동이 불편해서’ 13.0%(7명), ‘교통이 불편해서’ 9.3%(5명), ‘기타’ 16.6%(9명)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내 장애인복지관의 역할에 대해 물었을 때,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13.3%(76명), ‘심리 상 및 재활정보 제공’ 8.2%(47명),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15.7%(90명), ‘문화·여가 기회 제공’ 12.7%(73명),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 기술 교육’ 13.3%(76명),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10.3%(59명),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4.5%(26명),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11.7%(67명),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2.4%(14명),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 7.3%(42명), ‘기타’ 0.6%(3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전화상담’ 10.1%(30명), ‘재활정보 공유’ 14.8%(44명), ‘생활키트 전달’ 36.6%(109명), ‘방역 물품 전달’ 16.8%(50명),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 17.4%(52명), ‘복지관 소식 관련 영상 제작’ 3.3%(10명), ‘기타’ 1.0%(3명)로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 시, 복지관 운영을 어떻게 하면 좋은 지에 대해 물었을 때, ‘모두 중단’ 7.4%(22명), ‘1:1 수업만 진행’ 21.4%(64명), ‘10인 이하 프로그램 운영’ 34.8%(104명), ‘온라인 방식’ 8.7%(26명), ‘재가서비스 운영’ 18.7%(56명), ‘모두 이용’ 8.0%(24명), ‘기타’ 1.0%(3명)로 나타났다.

■ 영역별 욕구(영유아)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10.3%(3명), ‘아니요’가 89.7%(26명)로 나타났다. 영유아 나이가 낮아 이용경험이 아직 많지 않음을 알 수 있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3명 모두 ‘1년 이하’로 이용해본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물어본 결과 ‘또래와의 어울림’ 3.4%(1명), ‘사회성 향상’ 6.9%(2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0.7%(6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34.5%(10명), ‘다양한 체험’ 34.5%(10명)로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다양한 체험’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0.7%(6명), ‘긴 대기기간’ 37.9%(11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7.2%(5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3.4%(1명), ‘기타’ 20.8%(6명)로 ‘긴 대기기간’에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13.8%(8명), ‘문화체험’ 15.5%(9명), ‘나들이·여행’ 29.3%(17명), ‘스포츠 교실’ 19.0%(11명), ‘가족 프로그램’ 22.4%(13명)로 나타났으며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아니요’가 100.0%(29명)로 아무도 교육 서비스를 이용해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48.3%(14명), ‘사회성 향상’ 13.8%(4명), ‘지식 향상’ 10.3%(3명), ‘다양한 체험’ 27.6%(8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긴 대기기간’ 31.0%(9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0.0%(3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0.3%(3명), ‘기타’ 24.2%(7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3.9%(19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21.4%(12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28.6%(16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12.5%(7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3.6%(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영역별 욕구(아동·청소년)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0.4%(21명), ‘아니요’가 59.3%(31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7.8%(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66.7%(12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5.5%(1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은 물어본 결과 ‘또래와의 어울림’ 24.0%(12명), ‘사회성 향상’ 20.0%(10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4.0%(12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16.0%(8명), ‘다양한 체험’ 16.0%(8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10.0%(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0.0%(10명), ‘긴 대기기간’ 16.0%(8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2.0%(6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8.0%(9명), ‘기타’ 24.0%(12명)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보호자가 같이 참여해야 하는 부담감’, ‘중증, 활동 제약이 있는 장애여서 참여가 어렵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0.4%(20명), ‘문화 체험’ 12.2%(12명), ‘동아리활동’ 12.2%(12명), ‘나들이·여행’ 27.6%(27명), ‘스포츠 교실’ 10.2%(10명), ‘가족 프로그램’ 17.4%(17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36.5%(19명), ‘아니요’가 63.5%(33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9.4%(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58.8%(10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1.8%(2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53.8%(28명), ‘사회성 향상’ 23.1%(12명), ‘지식 향상’ 5.8%(3명), ‘학업성적 향상’ 3.8%(2명), ‘다양한 체험’ 11.5%(6명), ‘자립능력 향상’ 2.0%(1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7.7%(4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9.6%(5명), ‘긴 대기기간’ 28.8%(15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5.4%(8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21.2%(11명), ‘기타’ 17.3%(9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33.7%(35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1.5%(12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30.8%(32명), ‘학업보충 프로그램’ 9.6%(10명), ‘안전 및 건강교육’ 1.9%(2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1.5%(12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1.0%(1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59.6%(31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40.4%(21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1/2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6.1%(5명), ‘취업 현장의 체험’ 9.7%(3명), ‘직업능력 향상’ 12.9%(4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5.8%(8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9.4%(6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9.7%(3명), ‘기타’ 6.4%(2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9.4%(6명), ‘긴 대기기간’ 6.5%(2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9.0%(9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9.4%(6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9.7%(3명), ‘기타’ 16.0%(5명)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6%(1명), ‘직업 적응훈련’ 32.3%(20명), ‘자격증 취득교육’ 16.1%(10명), ‘직업훈련’ 43.6%(27명), ‘직업훈련(공과훈련)’ 3.2%(2명), ‘취업알선 및 연계’ 3.2%(2명)로 나타났으며 ‘직업 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9.7%(6명), ‘공예’ 1.6%(1명), ‘인쇄’ 14.5%(9명), ‘미용, 피부관리’ 4.8%(3명), ‘조리’ 24.2%(15명), ‘제과 제빵’ 24.2%(15명), ‘바리스타’ 16.2%(10명), ‘도배’ 4.8%(3명)로 나타났으며 ‘제과 제빵’과 ‘조리(양식, 한식 등)’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장애정도가 심해서’ 52.4%(11명), ‘나이가 어려서’ 33.3%(7명),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9.5%(2명),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4.8%(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36.5%(19명), ‘아니요’가 63.5%(33명)로 나타나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자립하고 싶지 않다고 응답하였다.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36.8%(7명), ‘경제적 어려움’ 21.1%(4명), ‘사회적 관계’ 10.5%(2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5.3%(1명), ‘응급상황 대처’ 15.8%(3명), ‘기타’ 10.5%(2명)로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13.2%(5명), ‘의료 재활 지원’ 15.8%(6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21.1%(8명), ‘주거 지원’ 15.8%(6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3.7%(9명), ‘보조기기 지원’ 5.2%(2명), ‘이동편의 지원’ 5.2%(2명)로 나타났으며 ‘일상생활 활동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직업재활,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84.8%(28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15.2%(5명)로 나타나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의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영역별 욕구(청년)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64.9%(48명), ‘아니요’가 35.1%(26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9.7%(11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40.5%(15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5.4%(2명), ‘10년 초과’가 24.4%(9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17.8%(13명), ‘또래와의 어울림’ 19.2%(14명), ‘사회성 향상’ 23.3%(17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1.9%(16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6.8%(5명), ‘특기적성 개발’ 2.7%(2명), ‘다양한 체험’ 8.3%(6명)로 ‘사회성 향상’,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15.9%(11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20.3%(14명), ‘긴 대기기간’ 17.4%(12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1.9%(22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1.6%(8명)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3.6%(34명), ‘문화 체험’ 19.4%(28명), ‘동아리활동’ 12.5%(18명), ‘나들이·여행’ 25.0%(36명), ‘스포츠 교실’ 13.2%(19명), ‘가족 프로그램’ 5.6%(8명), ‘기타’ 0.4%(1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66.2%(49명), ‘아니요’가 33.8%(25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23.8%(10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50.0%(21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11.9%(5명), ‘10년 초과’가 14.3%(6명)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목적은 ‘일상생활능력 향상’ 26.4%(19명), ‘사회성 향상’ 15.3%(11명), ‘특기적성 개발’ 2.8%(2명), ‘지식 향상’ 6.9%(5명), ‘향후 취업준비’ 22.2%(16명), ‘다양한 체험’ 11.1%(8명), ‘자립능력 향상’ 15.3%(11명)로 나타나 ‘일상생활능력 향상’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20.9%(14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7.9%(12명), ‘긴 대기기간’ 22.4%(15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5.4%(17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1.9%(8명), ‘기타’ 1.5%(1명)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긴 대기기간’이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교육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일상생활훈련’이 16.4%(23명),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10.0%(14명), ‘사회적응 프로그램’ 19.3%(27명), ‘직업 및 적성 개발 교육’ 27.1%(38명), ‘안전 및 건강교육’ 9.3%(13명),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10.7%(15명), ‘인권, 권익옹호교육’ 6.4%(9명), ‘기타’ 0.8%(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 및 적성 개발 교육’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사회적응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컴퓨터, 정보화 교육’이 있었다.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79.5%(58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20.5%(15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2/3 이상이 취업 의사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9.0%(11명), ‘취업현장의 체험’ 12.1%(7명), ‘직업능력 향상’ 19.0%(11명), ‘취업 및 창업’ 13.8%(8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27.6%(16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3.4%(2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5.1%(3명)로 나타나 ‘사회적응능력 향상’이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20.0%(11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9%(6명), ‘긴 대기기간’ 14.5%(8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7.3%(4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4.5%(8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2.8%(18명)로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7.0%(8명), ‘직업 적응훈련’ 28.9%(33명), ‘자격증 취득교육’ 8.8%(10명), ‘직업훈련’ 17.5%(20명), ‘직업훈련(공과훈련)’ 7.1%(8명), ‘취업알선 및 연계’ 29.8%(34명), ‘기타’ 0.9%(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17.6%(19명), ‘공예’ 6.5%(7명), ‘인쇄’ 4.6%(5명), ‘미용, 피부관리’ 4.6%(5명), ‘조리’ 6.5%(7명), ‘제과 제빵’ 25.9%(28명), ‘바리스타’ 26.9%(29명), ‘도배’ 1.9%(2명), ‘기타’ 5.5%(6명)로 나타났으며 ‘바리스타’와 ‘제과 제빵’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작업’, ‘택배’, ‘안마사’ 등의 의견이 있었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현재 직장이 있어서’가 7.7%(1명), ‘장애정도가 심해서’ 69.2%(9명), ‘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7.7%(1명), ‘급여가 낮아서’ 7.7%(1명),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7.7%(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1/2 이상을 차지하였다.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59.5%(44명), ‘아니요’가 40.5%(30명)로 나타났다.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23.9%(11명), ‘경제적 어려움’ 39.1%(18명), ‘건강관리’ 10.9%(5명), ‘사회적 관계’ 15.2%(7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8.7%(4명), ‘응급상황 대처’ 2.2%(1명)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26.7%(23명), ‘의료 재활 지원’ 4.6%(4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29.1%(25명), ‘주거 지원’ 14.0%(12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4.4%(21명), ‘이동편의 지원’ 1.2%(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재활, 취업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그다음으로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72.4%(21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7.6%(8명)로 나타나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이 응답의 2/3이상으로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영역별 욕구(중장년) ■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4.2%(38명), ‘아니요’가 55.8%(48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이하’가 13.9%(5명), ‘1년 초과 5년 이하’가 38.9%(14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30.6%(11명), ‘10년 초과’가 16.6%(6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에 대해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35.6%(31명), ‘또래와의 어울림’ 9.2%(8명), ‘사회성 향상’ 10.3%(9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0.7%(18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5.7%(5명), ‘다양한 체험’ 17.3%(15명), ‘기타’ 1.2%(1명)로 ‘여가시간 활용’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17.6%(1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6.5%(14명), ‘긴 대기기간’ 7.1%(6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35.3%(30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9.4%(8명), ‘기타’ 14.1%(12명)로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장애 정도로 인한 이동의 불편함’, ‘활동 지원사 필요’ 등이 있었다.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28.1%(43명), ‘문화체험’ 25.5%(39명), ‘동아리활동’ 4.6%(7명), ‘나들이·여행’ 28.1%(43명), ‘스포츠 교실’ 8.5%(13명), ‘가족 프로그램’ 3.9%(6명), ‘기타’ 1.3%(2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취업 의사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라고 응답한 사람이 44.8%(39명), ‘아니요’라고 응답한 사람이 55.2%(48명)로 나타나 응답자 중 1/2 이상이 취업 의사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이 높은 중장년층이라 취업 의사가 없다는 응답이 더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목적에 대해 물었을 때, ‘일상생활훈련’이 15.4%(6명), ‘취업 현장의 체험’ 15.4%(6명), ‘직업능력 향상’ 10.3%(4명), ‘취업 및 창업’ 12.8%(5명), ‘사회적응능력 향상’ 12.8%(5명), ‘사회적 안정·소속감’ 15.4%(6명), ‘삶의 보람 및 성취감’ 17.9%(7명)로 나타났다.

직업재활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23.1%(9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0.3%(4명), ‘긴 대기기간’ 2.6%(1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12.8%(5명),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17.9%(7명),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33.3%(13명)로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재활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직업상담 및 평가’가 10.3%(7명), ‘직업 적응훈련’ 25.0%(17명), ‘자격증 취득교육’ 14.7%(10명), ‘직업훈련’ 16.2%(11명), ‘직업훈련(공과훈련)’ 4.4%(3명), ‘취업알선 및 연계’ 27.9%(19명), ‘기타’ 1.5%(1명)로 나타났으며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및 연계’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의 응답 분포는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23.0%(14명), ‘공예’ 18.0%(11명), ‘인쇄’ 4.9%(3명), ‘미용, 피부관리’ 6.6%(4명), ‘조리’ 1.6%(1명), ‘제과 제빵’ 16.4%(10명), ‘바리스타’ 21.3%(13명), ‘기타’ 8.2%(5명)로 나타났으며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과 ‘바리스타’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단순포장’, ‘웃수선’, ‘일반사무직’ 등의 의견이 있었다.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현재 직장이 있어서’가 14.6%(7명), ‘장애정도가 심해서’ 56.3%(27명), ‘나이가 많아서’ 14.6%(7명),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2.1%(1명),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10.3%(5명), ‘기타’ 2.1%(1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기타 의견으로는 ‘자녀 양육때문에’, ‘혼자 살아서 수급비로 만족한다.’ 등의 의견이 있었다.

자립 의향에 대해 물어본 결과 ‘예’가 67.8%(59명), ‘아니요’가 32.2%(28명)로 나타났다.

자립생활 중 가장 어려운 것에 대해 물어본 결과 ‘일상생활’이 15.3%(9명), ‘경제적 어려움’ 54.2%(32명), ‘건강관리’ 27.1%(16명),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3.4%(2명)로 ‘경제적 어려움’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경제적 지원’ 30.5%(29명), ‘의료 재활 지원’ 20.0%(19명), ‘직업재활, 취업 지원’ 15.8%(15명), ‘주거 지원’ 9.5%(9명), ‘일상생활 활동 지원’ 20.0%(19명), ‘보조기기 지원’ 1.1%(1명), ‘이동편의 지원’ 2.0%(2명), ‘기타’ 1.1%(1명)로 나타났으며 ‘경제적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의 응답 결과로 ‘현재 자립 중이어서’가 32.1%(9명),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 46.4%(13명),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21.4(6명)로 나타나 ‘장애정도가 심해서’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가장 높은 분포를 보였다.

■ 영역별 욕구(노인) ■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경험을 물어본 결과 ‘예’가 43.1%(25명), ‘아니요’가 56.9%(33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기간에 대해 물어본 결과 ‘1년 초과 5년 이하’가 72.0%(18명), ‘5년 초과 10년 이하’가 8.0%(2명), ‘10년 초과’가 20.0%(5명)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이용목적을 물어본 결과 ‘여가시간 활용’이 37.9%(22명), ‘또래와의 어울림’ 6.9%(4명), ‘사회성 향상’ 5.2%(3명),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25.9%(15명), ‘보호자의 돌봄 부담 완화’ 3.4%(2명), ‘특기적성 개발’ 5.2%(3명), ‘다양한 체험’ 12.1%(7명), ‘기타’ 3.4%(2명)로 ‘여가시간 활용’,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가 많은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 이용 시 가장 큰 어려움을 물어본 결과 ‘이용료에 대한 부담’이 8.6%(5명),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17.2%(10명), ‘긴 대기기간’ 1.7%(1명),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27.6%(16명),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12.1%(7명), ‘기타’ 32.8%(19명)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거동불편’, ‘건강 문제’ 등의 의견이 많이 나타나 높은 연령으로 이동상의 불편을 호소하는 의견이 많이 나타났다.

희망하는 문화·여가·자치활동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취미교양’이 33.0%(31명), ‘문화체험’ 17.0%(16명), ‘동아리활동’ 7.4%(7명), ‘나들이·여행’ 30.9%(29명), ‘스포츠 교실’ 4.3%(4명), ‘가족 프로그램’ 5.3%(5명), ‘기타’ 2.1%(2명)로 나타났으며 ‘취미교양’과 ‘나들이·여행’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는 ‘힐링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 등이 있었다.

일상생활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지원처에 대해 물어봤을 때, ‘지원받지 않음’ 6.9%(4명), ‘활동지원사’ 12.1%(7명), ‘요양보호사’ 46.6%(27명), ‘가족, 친인척’ 34.5%(20명)로 나타나 ‘요양보호사’에게 가장 많은 도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해 물어봤을 때, ‘경제지원’ 37.7%(40명), ‘일상생활 지원’ 24.5%(26명), ‘정서지원’ 6.6%(7명), ‘주거지원’ 2.8%(3명), ‘건강지원’ 10.4%(11명), ‘문화여가지원’ 9.4%(10명), ‘재활정보 제공’ 8.6%(9명)로 나타나 ‘경제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일상생활지원’에 대해 가장 높은 욕구를 보였다.

희망하는 경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생계비, 생활비 지원 56.9%(33명), 의료비지원 6.9%(4명), 반찬, 생필품 지원 36.2%(21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생계비, 생활비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일상생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가사 지원 51.7%(30명), 이미용 서비스 15.5%(9명), 목욕 지원 1.7%(1명), 외출 지원 15.5%(9명), 보장구 대여 12.1%(7명), 기타 3.5%(2명)로 나타났다. 그 중 ‘가사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정서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상담서비스 31.0%(18명), 말벗 지원 24.1%(14명), 안부전화 20.7%(12명), 동료상담 19.0%(11명), 기타 5.2%(3명)로 나타났다. 그 중 ‘상담서비스’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주거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도배/장판 지원 8.6%(5명), 집수리 지원 20.7%(12명),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 10.3%(6명), 청소, 소독 지원 56.9%(33명), 기타 3.5%(2명)로 나타났다. 그 중 ‘청소, 소독 지원’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희망하는 건강지원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건강검진이 51.7%(30명), 건강교육 24.1%(14명), 재활프로그램 지원 12.1%(7명), 체력단련실 운영 6.9%(4명), 혈압, 혈당 관리 5.2%(3명)로 나타났다. 그 중 ‘건강검진’에 대한 욕구가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기타의견으로는 ‘안마’가 있었다.

희망하는 문화여가 서비스의 응답 분포는 나들이 46.6%(27명), 공연, 영화 관람 5.2%(3명), 취미교실 39.7%(23명), 자조모임 3.4%(2명), 기타 5.1%(3명)로 나타났다. 그 중 ‘나들이’에 대한 욕구가 가장 컸고, 그다음으로 ‘취미교실’에 대한 욕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제언

본 설문조사는 세부적이고 깊이 있는 지역장애인의 욕구를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며, 장애인복지관에 원하는 욕구에서 나아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서비스의 욕구를 조사함으로써 복지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복지관의 향후 사업을 운영하는 데에 있어서 기초자료가 되는 통계를 얻을 수 있었다. 이 설문조사를 통해 3가지의 결론을 유추했으며, 내용은 아래와 같다.

첫째, 코로나19로 변화된 사회에 맞춘 프로그램 개발

일상생활 속에서 겪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에 대해 물었을 때, 1순위 경제적 어려움이 42.8%(122명), 2순위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이 18.0%(48명)로 나타났으며, 희망하는 재가복지서비스에서도 경제적 지원이 37.7%(40명)로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 또한, 코로나19 장기화 시, 지속적으로 필요한 서비스에 대해 물었을 때, 생활키트 전달(식료품 등)이 36.6%(109명)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소득감소 및 고용시장 위축으로 인해 많은 장애인들이 경제적 어려움 느끼고 있으며, 외출 제한 등으로 인한 의료 및 건강문제도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생필품 및 방역물품 등의 지원이 확대되어야 하며, 물품 구입, 의료기관 방문 등의 일상생활 속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체계(돌봄, 활동지원 등)의 지원이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또한, 4차 산업혁명에 따른 사회변화 속에서 장애인들이 차별과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복지관에서는 이와 관련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어야 한다. ZOOM(화상회의), 스마트폰, 키오스크 등의 이용 훈련을 통한 디지털 사용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여, 정보격차가 벌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할 것이다.

둘째, 자립지원 서비스 확대 및 탈시설화

자립 희망 및 자립지원 서비스 이용에 대해 물었을 때, 아동·청소년 36.5%(19명), 청년 59.5%(44명), 중장년 67.8%(59명)이 긍정적 응답을 보였다. 이런 결과를 통해 복지관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자립지원 프로그램에서 나아가 지역사회 내에서 스스로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한 형태의 자립 서비스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탈시설화 정책에 따라 장애인 자립지원에 대한 역할을 다하고 이에 따른 지원을 확대하여야 한다. 탈시설화를 위해서는 관공서, 복지시설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소외계층을 도울 수 있도록 시민의 역량 강화 및 참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남동구 장애인의 영역별 욕구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맞춤형 서비스 개발을 위한 근거 제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영역별로 희망하는 서비스에 대해 물었으며, 다음 결과는 각 희망하는 서비스에서 가장 많은 빈도수를 보인 응답을 생애주기별로 정리한 내용이다.

■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구분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영유아	나들이, 문화체험
아동·청소년	나들이, 문화체험
청년	나들이, 문화체험
중장년	나들이, 동아리
노인	나들이, 취미교양

■ 교육 서비스

구분	교육 서비스
영유아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아동·청소년	일상생활훈련, 사회적응 프로그램
청년	직업 및 적성개발 교육, 사회적응 프로그램

■ 직업재활 서비스

구분	직업재활 서비스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
아동·청소년	직업훈련	제과제빵
청년	취업알선 및 연계	바리스타
중장년	취업알선 및 연계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 자립지원 서비스

구분	자립지원 서비스
아동·청소년	일상생활 활동 지원
청년	경제적 지원
중장년	경제적 지원

■ 재가복지 서비스(노인)

- 경제지원 : 생계비, 생활비 지원
- 일상생활지원 : 가사 지원
- 정서지원 : 상담서비스
- 주거지원 : 청소, 소독 지원
- 건강지원 : 건강검진
- 문화여가 : 나들이

이처럼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선택할 수 있게 하여, 남동구 장애인의 욕구를 광의적 의미를 넘어 협의적으로 분석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문화·여가활동 서비스, 교육 서비스, 직업재활 서비스, 자립지원 서비스,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향후 복지관의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데에 의미 있는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2021년 지역 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설문지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설문지ID



재단법인 인천교구 천주교회유지재단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남동구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안녕하세요?

귀하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합니다.

저희 남동장애인복지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더불어 사는 따뜻한 세상'을 만들어 가기 위하여 다양한 교육과 재활프로그램 그리고 지역장애인들을 위한 통합적인 서비스제공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본 설문지는 지역 장애인의 문제점과 필요한 서비스에 대한 욕구를 파악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본 조사는 복지관의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는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로 쓰여 질 것입니다.

본 조사의 결과는 종합적으로 통계처리 되기 때문에 개인적인 의견과 정보는 「통계법」제33조에 의거하여 철저히 비밀보장이 되며, 통계조사 목적 이외의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시어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2021년 8월
남동장애인종합복지관

I. 다음은 일반적인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 표시를 해주세요.

* 만일 가족이나 보호자가 대신하여 응답할 때, **장애인 당사자를 기준으로** 표시해 주십시오.

1. 다음은 귀하의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질문입니다.

응답자와의 관계	__① 본인(당사자)	__② 가족(부모, 형제, 배우자, 친척 등)
	__③ 외부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__④ 기타()

* 장애 당사자를 기준으로 작성해 주십시오.

성 별	__① 남자	__② 여자	나 이	만 _____ 세
경 제 수 준	__① 기초생활수급자	__② 차상위	__③ 일반	
결 혼 상 태	__① 미혼	__② 기혼	__③ 이혼	
	__④ 사별	__⑤ 별거	__⑥ 기타()	
학 력	__① 미취학	__② 초등학교 재학·졸업	__③ 중학교 재학·졸업	
	__④ 고등학교 재학·졸업	__⑤ 대학교 재학·졸업	__⑥ 무학	
가구 월평균 총소득 (가구원 소득 전체 합산)	__① ~100만원 미만	__② 100~200만원 미만	__③ 200~300만원 미만	
	__④ 300~400만원 미만	__⑤ 400~500만원 미만	__⑥ 500만원 이상	
주택소유 형태	__① 자가	__② 전세	__③ 월세	
	__④ 영구임대	__⑤ 기타()		
가족구성 형태	__① 1인가구(독거)	__② 부부	__③ 부부+자녀	__④ 한부모+자녀
	__⑤ 조부모+부부+손자녀	__⑥ 조부모+손자녀	__⑦ 형제(남매, 자매)	
함께 사는 가족 수 (본인 포함)	_____명		가족 중 장애인 수 (본인 포함)	_____명
남동구 거주 기간	_____년 _____개월			

2. 다음은 귀하의 장애 특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주장애 유형	__① 지체장애	__② 시각장애	__③ 뇌병변장애
	__④ 청각장애	__⑤ 언어장애	__⑥ 지적장애
	__⑦ 자폐성장애	__⑧ 정신장애	__⑨ 신장장애
	__⑩ 심장장애	__⑪ 호흡기장애	__⑫ 간장애
	__⑬ 뇌전증장애	__⑭ 안면장애	__⑮ 장루·요루장애
중복장애 유형	*중복장애 유형을 위의 번호로 모두 작성 _____		
장애 정도	__①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중증, 1~3급)		
	__②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경증, 4~6급)		

Ⅱ. 다음은 귀하의 **개인적인 문제**에 관한 질문입니다. 해당하는 사항에 'V' 표시해 주십시오.

3. 귀하나 가족이 현재 생활하면서 겪고 있는 **어려움 정도에 표시**해 주십시오.

문항	매우 어렵다.	어렵다.	보통이다.	어렵지 않다.	전혀 어렵지 않다.
① 경제적 어려움					
② 취업의 어려움					
③ 편의시설 이용의 어려움					
④ 교육의 어려움					
⑤ 의료 및 건강의 어려움					
⑥ 가족부양, 양육의 어려움					
⑦ 가족관계의 어려움					
⑧ 심리적 어려움					
⑨ 대인관계의 어려움					
⑩ 일상생활의 어려움					
⑪ 문화여가생활의 어려움					

4. 위의 어려움 중 가장 어렵다고 생각 되는 것 **1순위, 2순위**를 번호로 적어 주십시오.
1순위 : () 2순위 : ()

5. 어려움이 생겼을 때 어디에 주로 도움을 요청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스스로 해결	<input type="checkbox"/> ② 가족 내에서 해결
<input type="checkbox"/> ③ 행정복지센터, 복지기관 등에 도움 요청	<input type="checkbox"/> ④ 인터넷 등 정보망 이용
<input type="checkbox"/> ⑤ 친구, 이웃, 종교 등에 도움 요청	<input type="checkbox"/> ⑥ 공교육기관(학교 등)에 도움 요청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9. 장애인복지관이 지역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두가지 선택)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장애인의 권익 증진과 인식 개선 | <input type="checkbox"/> ② 심리 상담 및 재활정보 제공 |
| <input type="checkbox"/> ③ 장애인 재활과 건강 증진 | <input type="checkbox"/> ④ 문화·여가 기회 제공 |
| <input type="checkbox"/> ⑤ 장애인 자립지원과 사회기술 교육 | <input type="checkbox"/> ⑥ 장애인 일자리 발굴 및 취업 알선 |
| <input type="checkbox"/> ⑦ 사회성 증대 및 지역주민 교류 | <input type="checkbox"/> ⑧ 경제·생활서비스 지원 |
| <input type="checkbox"/> ⑨ 식당, 체력단련실 등 편의시설 제공 | <input type="checkbox"/> ⑩ 사회서비스 제공(활동지원, 바우처 등) |
| <input type="checkbox"/> ⑪ 기타() | |

10.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전화상담 | <input type="checkbox"/> ② 재활정보 공유(카톡, 페이스북 밴드 등) |
| <input type="checkbox"/> ③ 생활키트 전달(식료품 등) | <input type="checkbox"/> ④ 방역물품 전달(마스크, 손소독제 등) |
| <input type="checkbox"/> ⑤ 비대면 프로그램 실시
(미션챌린지, 영상통화 등) | <input type="checkbox"/> ⑥ 복지관 소식관련 영상 제작(유튜브)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11. 코로나19가 장기화될 경우, 복지관에서 서비스를 어떻게 운영하면 좋겠습니까?

- | | | |
|-----------------------------------|--------------------------------------|---|
| <input type="checkbox"/> ① 모두중단 | <input type="checkbox"/> ② 1:1수업만 진행 | <input type="checkbox"/> ③ 10인 이하 프로그램 운영 |
| <input type="checkbox"/> ④ 온라인 방식 | <input type="checkbox"/> ⑤ 재가서비스 운영 | <input type="checkbox"/> ⑥ 모두이용 |
|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 | |

*** 다음부터는 해당 장애인의 연령을 기준으로 영역을 선택한 후 응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 | |
|----------------------------|------------------------------|
| ① 영유아 (만6세 이하) - 7페이지 | ② 아동·청소년 (만7세~18세 이하) - 9페이지 |
| ③ 청년 (만19세~38세 이하) - 13페이지 | ④ 중장년 (만39세~64세 이하) - 17페이지 |
| ⑤ 노인 (만65세 이상) - 21페이지 | |

<다음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7번으로)

16-1.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17.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② 사회성 향상

③ 특기적성 개발

④ 지식 향상

⑤ 학업성적 향상

⑥ 다양한 체험

⑦ 자립능력 향상

⑧ 기타()

18.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③ 긴 대기기간

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⑤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⑥ 기타()

1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① 일상생활훈련

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④ 학업보충 프로그램

⑤ 안전 및 건강교육

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⑧ 기타()

20.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다음은 **교육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7번으로)

16-1.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17.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일상생활능력 향상

② 사회성 향상

③ 특기적성 개발

④ 지식 향상

⑤ 학업성적 향상

⑥ 다양한 체험

⑦ 자립능력 향상

⑧ 기타()

18.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③ 긴 대기기간

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⑤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⑥ 기타()

19. 귀하가 교육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① 일상생활훈련

② 자기결정능력향상 프로그램

③ 사회적응 프로그램(지역사회시설 이용)

④ 학업보충 프로그램

⑤ 안전 및 건강교육

⑥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예술체육 등)

⑦ 인권, 권익옹호교육

⑧ 기타()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__① 예	__② 아니요 (☞25번으로)
-------	------------------

21.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__① 일상생활훈련	__② 취업현장의 체험
__③ 직업능력 향상	__④ 취업 및 창업
__⑤ 사회적응능력 향상	__⑥ 사회적 안정·소속감
__⑦ 삶의 보람 및 성취감	__⑧ 기타()

22.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__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__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__③ 긴 대기기간	__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__⑤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__⑥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__⑦ 기타()	

23.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__① 직업상담 및 평가	__② 직업적응훈련	__③ 자격증 취득교육
__④ 직업훈련	__⑤ 직업훈련(공과훈련)	__⑥ 취업알선 및 연계
__⑦ 기타()		

24. 귀하가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희망하십니까?(두가지 선택)

__①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__②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__③ 인쇄(사진, 스크린)
__④ 미용, 피부관리	__⑤ 조리(양식, 한식 등)	__⑥ 제과 제빵
__⑦ 바리스타	__⑧ 도배	__⑨ 기타()

2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현재 직장이 있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장애정도가 심해서
<input type="checkbox"/> ③ 나이가 어려서	<input type="checkbox"/> ④ 아직 진로를 정하지 못해서
<input type="checkbox"/> ⑤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⑥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⑦ 급여가 낮아서	<input type="checkbox"/> ⑧ 승진으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⑨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다음은 **자립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현재 자립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요 (☞29번으로)
------------------------------	---

27. 귀하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input type="checkbox"/> ②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적 관계(이웃 등)
<input type="checkbox"/> ⑤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input type="checkbox"/> ⑥ 응급상황 대처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28. 귀하가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경제적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의료재활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직업재활, 취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주거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일상생활 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⑥ 보조기기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이동편의 지원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29. 자립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6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__① 현재 자립 중이어서

__②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움(경제, 일상생활 등)

__③ 가족과 함께 살고 싶어서

__④ 필요성을 느끼지 못함

__⑤ 기타()

30.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장애 청년(만19~38세 이하)에 해당하는 분만 작성바랍니다.

<다음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2.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적이 있습니까?

① 예

② 아니요 (☞13번으로)

12-1.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 기간이 얼마나 되십니까?

_____년 _____개월

13.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① 여가시간 활용

② 또래와의 어울림

③ 사회성 향상

④ 정서적 안정·스트레스 해소

⑤ 보호자(가족 등)의 돌봄 부담 완화

⑥ 특기적성 개발

⑦ 다양한 체험

⑧ 기타()

14.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③ 긴 대기기간

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⑤ 원하는 시간대가 없음

⑥ 기타()

15. 귀하가 문화·여가활동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선택)

① 취미교양(음악, 공예, 요리 등 취미생활 관련)

② 문화체험(영화, 전시회, 스포츠 경기 관람 등)

③ 동아리활동(음악, 뮤지컬, 연극 등)

④ 나들이·여행

⑤ 스포츠 교실(배드민턴, 볼링, 요가 등)

⑥ 가족 프로그램(가족캠프, 형제자매 프로그램 등)

⑦ 기타()

<다음은 **직업재활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20. 앞으로 직업을 가지고 취업할 의향이 있습니까?

- ① 예 ② 아니요 (☞25번으로)

21.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이용하고자 하는 가장 큰 목적은 무엇입니까?

- ① 일상생활훈련 ② 취업현장의 체험
 ③ 직업능력 향상 ④ 취업 및 창업
 ⑤ 사회적응능력 향상 ⑥ 사회적 안정·소속감
 ⑦ 삶의 보람 및 성취감 ⑧ 기타()

22.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할 때, 가장 큰 어려움은 무엇입니까?

- ① 이용료에 대한 부담 ② 다양하지 않은 서비스
 ③ 긴 대기기간 ④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 부족
 ⑤ 맞지 않는 훈련의 수준 ⑥ 원하는 직종의 취업연계 어려움
 ⑦ 기타()

23. 귀하가 직업재활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 선택)

- ① 직업상담 및 평가 ② 직업적응훈련 ③ 자격증 취득교육
 ④ 직업훈련 ⑤ 직업훈련(공과훈련) ⑥ 취업알선 및 연계
 ⑦ 기타()

24. 귀하가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희망하십니까?
(두가지선택)

- ①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②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③ 인쇄(사진, 스크린)
 ④ 미용, 피부관리 ⑤ 조리(양식, 한식 등) ⑥ 제과 제빵
 ⑦ 바리스타 ⑧ 도배 ⑨ 기타()

25.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20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현재 직장이 있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장애정도가 심해서
<input type="checkbox"/> ③ 나이가 많아서	<input type="checkbox"/> ④ 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⑤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⑥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⑦ 급여가 낮아서	<input type="checkbox"/> ⑧ 승진으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⑨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다음은 **자립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6. 현재 자립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요 (☞ 29번으로)
------------------------------	--

27. 귀하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input type="checkbox"/> ②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적 관계(이웃 등)
<input type="checkbox"/> ⑤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input type="checkbox"/> ⑥ 응급상황 대처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28. 귀하가 자립생활 관련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
 (두가지 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경제적 지원	<input type="checkbox"/> ② 의료재활 지원
<input type="checkbox"/> ③ 직업재활, 취업 지원	<input type="checkbox"/> ④ 주거 지원
<input type="checkbox"/> ⑤ 일상생활 활동 지원	<input type="checkbox"/> ⑥ 보조기기 지원
<input type="checkbox"/> ⑦ 이동편의 지원	<input type="checkbox"/> ⑧ 기타()

20. 귀하가 직업훈련 또는 기술교육을 받는다면, 어떤 교육을 희망하십니까?(두가지선택)

<input type="checkbox"/> ① 컴퓨터, 정보처리, 전산	<input type="checkbox"/> ② 공예(금속, 목공, 도자기)	<input type="checkbox"/> ③ 인쇄(사진, 스크린)
<input type="checkbox"/> ④ 미용, 피부관리	<input type="checkbox"/> ⑤ 조리(양식, 한식 등)	<input type="checkbox"/> ⑥ 제과 제빵
<input type="checkbox"/> ⑦ 바리스타	<input type="checkbox"/> ⑧ 도배	<input type="checkbox"/> ⑨ 기타()

21. 취업을 희망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6번, ②아니요로 응답하신 분만 응답해주세요.)

<input type="checkbox"/> ① 현재 직장이 있어서	<input type="checkbox"/> ② 장애정도가 심해서
<input type="checkbox"/> ③ 나이가 많아서	<input type="checkbox"/> ④ 내 능력과 적성에 맞는 회사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⑤ 채용하려는 회사가 없어서	<input type="checkbox"/> ⑥ 일을 하고 싶지 않아서
<input type="checkbox"/> ⑦ 급여가 낮아서	<input type="checkbox"/> ⑧ 승진으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⑨ 동료 관계에서 차별받을까 두려워서	<input type="checkbox"/> ⑩ 기타()

<다음은 자립생활에 대한 질문입니다.>

22. 현재 자립하고 있거나, 앞으로 자립할 의향이 있습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예	<input type="checkbox"/> ② 아니요 (☞ 25번으로)
------------------------------	--

23. 귀하가 자립생활을 하면서 가장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input type="checkbox"/> ① 일상생활(청소, 식사, 이동 등)	<input type="checkbox"/> ② 경제적 어려움
<input type="checkbox"/> ③ 건강관리	<input type="checkbox"/> ④ 사회적 관계(이웃 등)
<input type="checkbox"/> ⑤ 외로움 또는 가족과의 분리	<input type="checkbox"/> ⑥ 응급상황 대처
<input type="checkbox"/> ⑦ 기타()	

<다음은 **재가복지 서비스**에 대한 질문입니다.>

16. 외부 중 누구로부터 일상생활을 가장 많이 지원받고 있습니까?

__① 지원받지 않음	__② 활동지원사	__③ 요양보호사
__④ 가족, 친인척	__⑤ 이웃, 친구, 종교인	__⑥ 기타()

17.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는 무엇입니까?(두가지선택)

__① 경제지원	__② 일상생활지원	__③ 정서지원
__④ 주거지원	__⑤ 건강지원	__⑥ 문화여가지원
__⑦ 재활정보 제공	__⑧ 인권 및 권익옹호교육	__⑨ 자조모임
__⑩ 기타()		

18. 귀하가 재가복지 서비스를 이용한다면, 희망하는 서비스를 **분야별로 1가지씩** 선택해주세요.

경제지원	__① 생계비 생활비 지원	__② 의료비 지원	__③ 교육비 지원
	__④ 반찬 생필품 지원	__⑤ 주거 보증금 지원	__⑥ 기타()
일상생활지원	__① 가사 지원	__② 이미용 서비스	__③ 목욕 지원
	__④ 외출 지원	__⑤ 보장구 대여	__⑥ 기타()
정서지원	__① 상담서비스	__② 말벗 지원	__③ 안부전화
	__④ 동료상담	__⑤ 기타()	
주거지원	__① 도배/장판 지원	__② 집수리 지원	__③ 가정 내 편의시설 지원(경사로 등)
	__④ 청소, 소독 지원	__⑤ 기타()	
건강지원	__① 건강검진	__② 건강교육	__③ 재활프로그램 지원
	__④ 체력단련실 운영	__⑤ 혈압, 혈당 관리	__⑥ 기타()
문화·여가지원	__① 나들이	__② 공연, 영화 관람	__③ 취미교실
	__④ 자조모임	__⑤ 기타()	

19. 남동구 장애인복지발전을 위하여 건의하고 싶은 사항을 자유롭게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 끝까지 설문에 응답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2021년 지역장애인 욕구조사 보고서

남동발간 2021-9

- 발행일 : 2021년 10월
- 발행인 : 손 동 훈
- 편집인 : 이 연 정
- 주 소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898
- 대표전화 : 032) 472-4004 팩스 : 032) 472-4005
- 홈페이지 : www.ndjb.or.kr

